

4일 Market Index			
↑ 코스피	2674.27	↑ 코스닥	872.97
	(+31.91)		(+10.01)
↓ 금리 (연-0.025%)	3.360	↓ 환율 (원-달러)	1331.30
	(-0.025)		(-0.20)

metro® 경제

尹 “TK신공항 건설
대구 교통망 혁신 기폭제
정부 과감히 지원”



02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3월 5일 화요일

형제 간 ‘책임경영’ 신호탄... 미래 경쟁력 시너지 기대

효성, 2개 지주사로 재편
중공업·섬유-첨단소재 분리
급변하는 경영환경 책임강화
비슷한 지분으로 분쟁 예방



조현준 회장 조현상 부회장

효성그룹이 사업을 이원화하며 미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사이 좋게 계열을 나누며 지며 새로운 경영 승계 사례를 남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주)효성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주)효성신설지주(가칭)를 설립하고 계열사를 인적 분할하는 계획을 결의했다.

신설지주에 효성첨단소재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을 비롯해 계열사들을 배치하는 내용이 다. 효성홀딩스 USA와 베트남 비나물류법인, 광주일보와 효성토요타와 더클래스효성 등 모빌리티 플랫폼도 함께 한다.

효성그룹은 효성중공업과 효성티앤씨 및 효성티앤에스, 효성화학과 효성ITX와 함께 FMK와 기타 계열사를 이어서 거느리

게 된다.

효성은 오는 6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분할 승인 절차를 거쳐 7월 1일자로 2개 지주사 체제로 새로운 체제를 시작할 예정이다. 분할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주)효성이 0.82, 효성신설지주가 0.18로 결정했다.

신설지주회사는 조현상 부회장이 대표를 맡아 안성훈 효성중공업 부사장과 신덕수 (주)효성전무가 이사회를 꾸릴 예정이다. 사외이사로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 이상엽 카이스트 부총장과 김진수 (주)툴젠 고문을 내정했다.

효성은 (주)효성이 전통적인 사업인 중공업과 섬유를 이어가는 가운데, 신설지주가 미래 소재

및 물류 및 데이터 솔루션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신설지주가 첨단소재와 데이터 솔루션, 글로벌 SCM을 중심으로 신사업과 M&A를 모색하며 성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효성은 이번 분할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책임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화해 경영을 효율화하겠다는 것. 증권가에서는 효성첨단소재가 부채 비율이 높고 효성화학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재무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놓고 있다.

특히 재계에서는 효성이 지주사 분할을 통해 형제간 계열 분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주)효성이 조현준 회장 21.94%, 조현상 부회장이 21.42%로 비슷한 지분 구조, 조현상 부회장에 따라 지주사를 마련하면 ‘형제의 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서다.

분리된 계열사는 이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경영 능력을 증명한 곳이기도 하다. 조



日 닛케이 지수 장중 최고치 경신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선을 돌파했다. 4일 닛케이지수는 오전 9시 개장과 동시에 4만선을 넘어 4만109로 마감했다. 닛케이지수가 장중과 증가 기준으로 4만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닛케이 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현준 회장은 2017년 회장에 취임해 효성티앤씨 ‘1조클럽’에 가입시키는 등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으며, 조현상 부회장은 효성첨단소재 이사를 겸임하며 타이어코드를 중심으로 첨단소재 부문에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조현상 부회장은 효성첨

단소재 지분도 12.21%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효성이 성공적으로 계열을 분리하면 재계에서 또다른 안정적인 승계 사례를 남길 수 있을 전

망이다. (2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예고

의료계 집단행동

정부, 엄정한 사법처리 시작
현장점검 통해 오늘 사전통보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지난 3일까지로 선처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 계획대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면허정지 사태가 예고되며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8945명(71.8%)이다. 복귀한 전공의는 누적 565명에 그쳤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복귀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가 선처를 약속했던 지난 3일까지도 복귀하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않은 만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식 송달하고 이날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의견진술 절차 등을 거쳐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미복귀 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

고받게 된다.

면허정지 위기에 놓인 전공의는 70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집단 면허정지 사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되는 것”이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5일) 바로 사전 통보를 예고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메트로경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0일(수)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고금리 속에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잃어가는 수축사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테크 전략도 다시 짜야 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고령화시대 재테크와 부동산 투자 전략을 모색합니다.

- 행사명 : 2024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주 제 :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 일 시 : 3월 20일(수) 오후 2시~5시1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30분~2시)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여3차 경선 결선서 손범규·유낙준·김동원 승리
▲ 이광재 ‘분당갑’ 출마 선언...“안철수 정책토론으로 붙어보자” /사진 뉴시스

▲ 너무나 더딘 국민의힘 TK 공천... 7곳 미확정
▲ 이재명 “한동훈 남의 눈 티끌만...여측 근·검사·씩은물·돈봉투 나쁜 공천 반복”



▲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 “선거구 조정 기준 개편 필요” 한목소리
▲ 설훈 “승리해 반드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 민주당대기가능성 시사 /사진 뉴시스

“신공항 건설, 교통망 혁신 기폭제 정부, 대구 도약위해 과감히 지원”

尹 대통령, 16번째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개항을 비롯한 교통망 혁신과 로봇·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공지능(AI) 및 연구개발(R&D) 전진기지, 대구 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업화의 중심 대구에서 대구와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지방시대 발전 과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산업 구조를 혁신해야 하고, 낡은 교통 인프라도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며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먼저, TK 통합 신공항 건설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해서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며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TK 통합 신공항 연계 고속교통망 확충을 위해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건설(서대구-신공항-경북 의성 연결) ▲팔공산 관동 민자 고속도로 개통(동대구-동군위 접근성 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K-2 공항 이전 부지도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교통이 결합된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군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대구·경북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대구가 AI와 빅데이터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 계획 K-2공항 이전부지 산업거점 육성 AI·빅데이터 R&D 전진기지 조성 로봇기업 테스트필드 건립 등 추진

R&D 전진기지로 크게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달성군의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에 대한 2000억원 투입 계획도 밝혔다.

이어 “대구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진 기계, 금속, 부품 산업을 토대로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가 대구의 산업을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며 “로봇 관련 기업들이 대구에서 편하게 개발과 실증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테스트필드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성 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해 제조업과 디지털의 융합을 이끄는 R&D 핵심 거점으로 만들고, “8000억원 규모로 건립 예정인 SK 수성 알파시티 AI 데이터센터에서 AI 관련 대형 R&D 과제들이 연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내의 우수한 연구진과 기업들이 국제 공동연구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대구 첨단 산업 발전에 몰

표를 트겠다”며 “대구만의 주력 산업도 AI, 빅데이터를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여 고도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대구 서남부는 로봇과 모빌리티 산업 거점으로, 대구의 동부는 AI와 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키우고, 대구에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며 “대구시가 수성 알파시티에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면 정부는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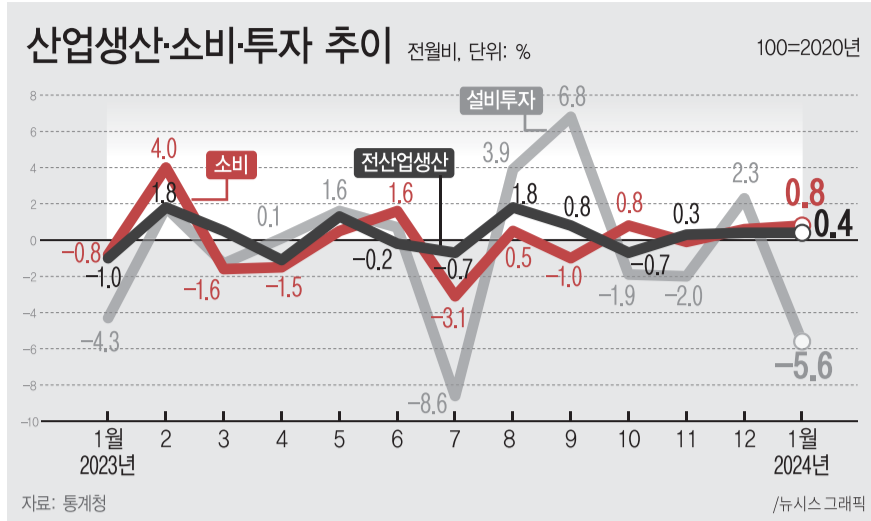
윤 대통령은 대구가 최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대구를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겠다. 대구 미래 산업을 키울 인재들을 양성하고, 이 인재들이 대구에서 일하며 대구·경북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으로 승격할 팔공산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국가 재정 인프라 투자를 시행하고, 대구 시내 중심인 동성로 일대를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해 청년과 관광객들로 붐비게 만들겠다고 했다.

또, 대구를 문화예술 허브로 만들고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을 약속했다.

이밖에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며 “지역의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티오(TO)를 대폭 확대해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하겠다. 국립의과대학과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산업생산·소비 증가세 유지 투자, 6개월來 최대폭 하락

통계청, 1월 산업활동 동향
광공업·공공행정 생산 줄어듦
제조업 재고·출하비율 6.5%p ↑

국내 산업생산이 3개월 연속으로 늘어났다. 소비도 2개월째 증가한 반면 투자는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5%대)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全) 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4%) 등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 1월 광공업과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건설업, 서비스업에서는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46.8%)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8.6%), 기계장비(-11.2%) 등에서 감소한 영향으로 1.3% 뒷걸음쳤다. 통신·방송장비는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컸다.

제조업 출하는 통신·방송장비(25.0%), 석유정제(3.3%), 의료정밀화학(10.5%) 등에서 증가한 반면, 반도체

(-32.6%), 기계장비(-11.6%), 기타운송장비(-19.9%) 등에서 감소해 전월보다 5.6% 줄어들었다. 제조업 재고는 통신·방송장비(-25.5%)와 전자부품(-8.9%), 화학제품(-4.0%) 등에서 줄었다. 그러나 반도체(1.8%)와 기계장비(5.2%), 식료품(6.9%) 등에서 재고가 늘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0.8%로 전월대비 6.5%포인트(p)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증가율이 높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수 자체로 보면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11월(0.0%) 보합 이후 12월(1.1%) 늘었으나 올해 1월 증가폭은 0.1%에 머물렀다. 도소매(-1.0%)를 비롯해 예술·스포츠·여가(-8.9%) 등에서 감소한 반면, 정보통신(4.9%), 부동산(2.6%) 등에서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8% 증가했다. 지난해 11월(-0.1%) 하락한 이후 12월(0.6%)과 1월(0.8%)에 미약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지분구조 복잡’ 분리 후 공동경영 가능성도

» 1면 ‘형제 간 책임경영’서 계속

차남인 조현문 씨가 일찌감치 관계를 끊은 상황, 사촌인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가 오랜 기간 형제간의난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효성은 조현준 회장이 평화적으로 3세 경영을 시작하고 상속 지분 정리도 잡음 없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지분 구조가 다소 복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장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이 효성 지주사 지분을 10.14%나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효성중공업(10.55%)과 효성화학(6.30%), 효성첨단소재(10.32%) 등 계열사에서도 대주주로 남아있다.

비상장사를 제외하고 시가 기준으론 계산하면 (주)효성 계열사인 효성중공업(약 2000억원)과 효성화학(약 1500억원) 지분이 약 2150억원, 신설지주인 효성첨단소재 지분이 약 1500억원으로 차이가 있다. (주)효성 지분도 약 1500억원, 분할 비율로 계산하면 조현준 회장에 2배 가량 많은 지분을

상속해야 한다. 때문에 양 지주사가 완전히 분리하는 대신, 앞으로도 공동 경영을 이어갈 가능성도 남아있다. SK그룹과 SK디스커버리와 같이 지분 구조와는 관계 없이 같은 계열사를 유지하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양 지주사는 다른 계열분리 사례와는 달리 상당 부분 사업을 공유하고 있다. 효성화학과 효성티앤씨, 그리고 효성첨단소재는 효성그룹을 이끌어왔던 3대 계열사로 꼽힌다. 효성 계열사들이 해외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만큼, 미국 사업소와 비나물류법인을 보유한 신설지주와 관계를 끊기도 어렵다.

조현상 부회장 역시 효성토요타와 ‘더클래스효성’ 등 모빌리티 사업에도 높은 관심을 이어온 만큼, 전기차 충전소 필수 부품인 변압기와 미래 에너지인 수소 생산에 공을 들이는 효성중공업과 시너지도 기대할만 하다. (주)효성 완전 자회사인 FMK도 마세라티 등 자동차 판매와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김재용기자 juk@

한화 vs HD현대중, 7조원대 구축함 수주 갈등 고조

한화오션, 국수본에 고발장 제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 경쟁이 법정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한화오션은 KDDX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개입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7일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행정지도를 결정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 후 회사 내부망을 이용해 공유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전경.

청은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 또는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당제재를 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사청의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범

죄행위마저 ‘꼬리 자르기’ 식 은폐 시도에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최소 한도의 범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방위산업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HD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KDDX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6000톤급의 미니 이지스함 6척을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총 7조8000억원에 달한다. 개념 설계를 시작으로 기본설계, 상세 설계·조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 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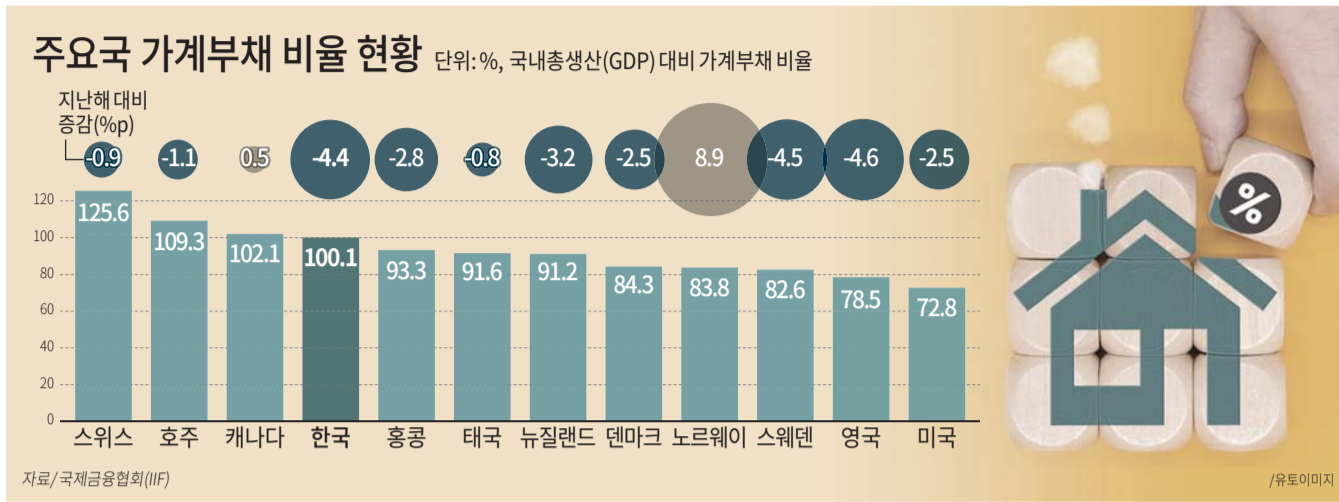
韓, GDP 대비 가계부채 100.1%... 감소폭 4.4%p '세계 3위'

세계 평균 61.5%... 1.5배
연내 100% 이하 달성 전망
기준금리 인하 여부 변수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GDP)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2개국 중 4위 수준이다. 다만 가계부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올해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세계 부채 모니터링 보고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1%로, 1년 전과 비교해 4.4%포인트(P) 하락했다. 전 세계 평균인 61.5%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다. 홍콩(93.3%), 태국(91.6%), 영국(78.5%), 미국(72.8%)보다 높은 셈이다.

앞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20년 3분기 100.5%로 처음으로 100%를 넘어선 이후 2021년 105%까지 올랐다. 당시 부동산



과 주식 호황기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족이 늘면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었다.

◆韓, 가계부채 빠르게 감소

국가별로 살펴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스위스가 125.6%로 가장 높았다. 1년 전(126.4%)에 비해 0.9%p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뒤이어 호주는 지난해보다 1.1%p 하락한 109.3%를, 캐나다는 0.5%p 상승한

102.1%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국가는 영국이었다. 영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2년말 83.1%에서 2023년 말 78.5%로 4.6%p 하락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4.4%p 하락해 하락폭 3위를 기록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가계부채 비율이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말 KB·신한·하나·우리·NH농

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7922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779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말 3조7616억원, 올해 1월 2조9048억원에서 2월 4779억원으로 증가폭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가계부채 '안정화'까진 아직 일리

다만 가계부채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지더라도 안정화됐다고 보기엔 이

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국은행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성장을 둔화시키고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계부채 비율이 신흥국 46.8%, 선진국 70.3%, 세계 전체 61.5%인 것으로 봤을 때 100% 안팎으로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높다는 설명이다.

한은관계자는 "가계신용비율이 80%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가계부채 비율을 빠르게 낮출 경우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감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가계부채 변수는 기준금리가 될 전망이다. 현재 연 3.50% 수준인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금리가 떨어진다. 이럴 경우 부동산 투자 수요가 꿈틀거리며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6G 등 첨단기술 총망라... 韓 통신사 선두경쟁

MWC 2024 폐막
SKT 글로벌 AI 합작법인 설립 추진
KT 구글 등 빅테크 기업 협력 모색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가 나흘 간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MWC는 통신이 주인공인 행사이지만 올해의 핵심화두는 인공지능(AI)과 미래교통수단이었다. 통신사들은 본업인 통신을 벗어던지고 AI 무선통신 기술을 융합하기 위한 협업에 나섰다.

4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에 따르면 총 10만1000명이 지난 달 26~2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그란 비아에서 열린 MWC 2024를 찾았다. 전 세계 200여개국에서 2400여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이 중 한국 기업은 165개사로 전체 참가국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

이번 MWC는 '미래가 먼저다'를 주제로 열린 만큼, 올해는 통신보다 첨단 기술이 흐름을 이끌었다. 참가 기업들은 완전 자율 주행차는 물론 도심 항공 교통(UAM)·홀로그램 등 미래 6G(6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본격화할 기술을 대거 선보였다.

◆통신사, AI 제조사에 협력 요청

통신사들은 빅테크 기업에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기존 통신업을 탈피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한 협업에 나섰다.

SK텔레콤은 MWC 개막 첫날인 지난 달 26일 도이치텔레콤과 이앤(e&), 싱텔,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통신사들과 AI 공동 개발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5개 통신사는 올해 안에 합작법인을 세워 통신사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KT도 자사를 'AICT 서비스 회사'로의 전환을 밝히며 향후 사업 전략에



유영상 SKT 사장이 MWC2024 현장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GTAA 합작법인 및 자사의 AI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SKT



김영섭 KT 대표가 MWC2024가 열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간담회를 열고 회사 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KT

AI가 중심에 있음을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가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덮고 있다"며 "MWC에 와서 KT가 향후 나아가갈 방향과 전략적 설정이 맞는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을 본업으로 꼭 쥐고 있으면 성장이 안되고 AI를 잘해야 통신도 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통신사는 AI 제조사에도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통신3사(SKT·KT·LG유플러스) CEO들은 삼성전자의 온디바이스 AI를 높게 평가하고 삼성전자 부스를 일제히 찾았다. 이에 삼성전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SKT는 AI 기반 디바이스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스타트업 휴메인(Humane)과 협업키로 했으며, LG유플러스는 AWS와 AI 활용 극대화 협력을 강화하는 협약을 맺었다. KT는 메타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 경영진 미팅을 갖는 한편, 아마존웹서비스(AWS)와 AI 개발 등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특히 MWC 주최 측인 GSMA와 오는 2024년 M360 APAC 서울 개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데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챗봇부터 플라잉카 구현

국내 통신사는 물론 삼성전자와 해외 빅테크들도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도 선보였다.

SKT는 MWC 2024에서 SKT는 전 시관에서 ▲고객지원 AI 상담센터 ▲챗봇이 구현된 버추얼 에이전트 ▲AI 기반의 스팸·스미싱 필터링 시스템 등 통신사 특화 LLM을 기반으로 여러 적용 사례를 선보였다.

KT도 'AI LIFE' 존에서 LLM(거대언어모델)이 적용된 AI 반도체, 소버린 AI 사례 등 초거대 AI가 적용된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GSMA와 'AI를 통한 디지털국가 발전'이라는 주제로 2024년 M360 APAC 서울 개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미래교통수단인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SK텔레콤이 선보인 도심 항공 교통기체와 미국 스타트업 알레프 에어 로노틱스의 플라잉카에 이목이 집중됐다. SK텔레콤은 전면 대형 LED를 통해 김포공항-위커킬 노선 비행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고흥·양평에 구축한 시범 상공망 테스트베드에서 항공 통신망 품질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첫 판매

원리금 보장... 年 1조 수준 발행 전망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처음 출시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의 1호 판매 대행 기관으로 최종 계약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전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미래에셋증권에서만 개인투자용 국채를 살 수 있게 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국채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입·발행 중에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올해 6월 첫 발행 예정이며,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원리금 보장으로 10년물과 20년물로 연간 총 1조원 수준에서 발행이 예상된다.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청약할 수 있으며, 매입 1년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중도환매가 가능하지만, 해당월 전체 한도금액 내에서만 가능하며 한도 소진시에는 불가할 수 있다.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41% (세후기준 35%),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99% (세후기준 84%)로 추산했다. 세전기준으로 연 평균 수익률은 10년물이 4.1% (세후기준 3.5%), 20년물은 4.9% (세후기준 4.2%)다. 물론 발행 시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14%)되는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10~20년 동안 높은 수준의 금리를 보장하고, 발행주체가 국가인 만큼 최고의 안정성을 가진다"며 "나이, 소득 구분없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최소 3개월 정지...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도

» 1년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서 계속

단, 처분을 내리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상 전공의들에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전공의들이 내려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가 최소 3개월이 정지되는 만큼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

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를 적정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또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의 환자에 해당하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협력해 진료하고 있다"며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도 30% 가량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빛더미에 깔린 소상공인… 장기상환 등 채무조정 절실”

이터뷰

최승재 국회의원

“코로나 팬데믹 시절 국가 공권력의 최대 피해자는 다름아닌 소상공인, 자영업자였다.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들을 위해 최대 3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통합프로그램’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승재 국회의원이 주택담보대출도 50년 만기 상품이 있듯, 소상공인이 성실하게 상환하고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리볼빙 시스템’과 같은 장기상환프로그램을 도입하자고 4일 목소리를 높였다.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의원은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 소상공인을 대변하는데 첨병 역할을 꾸준히 해왔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방역 조치로 영업정지 등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을 위해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 소급적용 등 ‘직접 손실보상’을 강력하게 외치며 여론 형성에 힘써왔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위해 삭발도 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시절 취해진 영업정지, 영업제한 등은 유효성, 합리성, 정당성 차원에서 매우 무리한 조치였다. 물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문은 닫았는데 소상공인들은 임대료나 공과금 등 고정비를 계속 내야 했다. 지원이라고 해봐야 대출뿐이었고, 그렇다보니 소상공인들은 빚으로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최 의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직전인 2019년



“국민의힘에서 4년간 소상공인 목소리 대변 코로나 팬 ‘직접 손실보상’ 강력 주장 펼쳐 성실상환자에 ‘리볼빙 시스템’으로 재기 돕고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제’로 은행문턱 낮춰야 인력 등 고비용구조 획기적 전환 대책 만들어 서민·민생정책 근원적 문제 반드시 해결 필요

말 당시 685조원 수준이었던 자영업자 대출은 804조원(2020년 말), 909조원(2021년 말)을 거쳐 2022년 말엔 1020조원까지 크게 늘었다. 지난해 2·4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약 1043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돈도 역대 가장 많은 7조3000억원(2023년

2분기 기준)까지 늘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1금융권에서 대출 받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 시절 보증서를 들고가면 대출이 보다 수월했다. 은행들이 부담할 리스크는 없었다.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대출로 버틸 수밖에 없었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렸지

만 소비에 큰 도움이 되질 못했다. 이후 금리까지 오르면서 빌린 돈이 많았던 소상공인들은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며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의 이자수익은 2021년 당시 26조7102억원에서 2022년 말엔 36조2071억원까지 늘었다.

최 의원은 이를 놓고 “은행들은 로또를 맞았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대출을 해준 죄밖에 없다고 항변할 지 모르겠다. 그 와중에도 은행들은 퇴직자 명퇴금과 임직원 복지를 더 늘렸다. 지주회사는 힘이 커졌지만 내부 통제는 부실해졌다. 금융사고는 곳곳에서 벌어졌다. 은행은 단군 이래 가장 많은 순이익을 거뒀지만 소상공인들은 가장 많이 힘들어한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은 문재인 정부가 겪고 대응했지만 후속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소상공인 금융정책’이 그것이다.

그는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한국형 장기 상환 리볼빙 프로그램’을 도입해 소액을 안정적으로 상환하고 더 불어경영의지를 고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을 유지하거나 디지털 전환 등 혁신 교육을 받고, 전업·재창업 등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선 원리금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의 문턱을 좀더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 데도 20년의 시간이 걸렸다. 제1금융권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필수적인 신용점수, 담보, 서류 외에 전년도 소득금액을 증명하면 대출액을 늘려줘야 한다. 궁극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상공인 전문 은행의 필요성에 대해 최 의원은 “소상공인 공제가 우선이다. 은행을 설립하기위해선 자본력이 있어야 하는데 소상공인은 (문치기 쉽지 않아) 스스로 자본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출발은 소상공인 스스로가 자각을 하는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총선에서 경기 광명갑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던 최 의원은 자신을 포함해 3명이 나섰던 경선을 지난 29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소상공인 문제는 국가의 문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해 (국회의원)선거판에서 근원적 문제를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총선에 앞서 서민정책이자 민생정책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상공인과 관련해 인력 등 고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를 가르쳐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 관련 정책에선 매우 중요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농업 디지털전환·R&D혁신 등 고소득 창출… 청년창업 맞춤형 지원”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스마트농업·푸드테크 등 집중투자” R&D 혁신방안 이달 중 마련 계획

정부가 올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적극 활용하고, 2000억원 규모의 청년 대상 펀드를 추가 결성하는 등 창업과 초기 정착에 필요한 정책지원을 크게 강화한다. 또 농업의 디지털 전환 및 R&D 체계 혁신 등을 통한 고소득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식품 수출과 관련해서는 정상 외교를 활용해 적극적 농업외교 전략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 것”이라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첨단기술 활용이 확산하면서 농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첨단기술과 타 산업이 융복합되면서 청년층의 스마트농업 등 취업 및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 음성군의 ‘드론 자율봉사단’이 무인동력비행장치를 활용한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청년층의 창업에 필요한 농지·시설·자금과 함께 정착에 필요한 초기소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를 재작년(1만2000명)과 작년(1만8000명) 대비 증가한 2만2000명으로 올려 잡았다.

정부는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에게 공공임대, 임대임대, 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혁신밸리 보육센터(연간 208명, 20개월) 수료생의 창업기반 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최대 3년)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로써 총 13개소로 늘어난다. 혁신밸리창업보육센터에서 청년농업인 교육을 실시한 뒤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예비창업 단계를 다진다. 그 이후 취·창업으로 연결되는 수순이다.

정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규모를 기존의 514억 원에서 689억 원으로 늘렸다. 동시에 청년농 우대보증(95%) 한도를 종전의 1인당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지난 10월 확대한 바 있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규 지원대상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농촌보급자리 8곳을 더 조성해 총 17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2000억 원 규모의 청년 대상 펀드를 추가로 결성해 창업·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R&D 개편 및 기술 금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관별 특화연구, 국제공동연구 강화 등 ‘꼭 필요한 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R&D 혁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3대 중점 분야(스마트농

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올해 3대 중점 분야에 책정한 투자액은 941억 원으로 2024년 농식품부 R&D 예산의 43.6%를 차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칸막이제거, 부처협력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K-푸드 정책과 관련해, 할랄·중남미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시장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동 정상순방을 계기로 성사된 기업 MOU(7건)가 수출·수주 계약 체결로 이어지도록 지원단을 발족해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K-라이프벨트’를 본격 추진해 농업기술의 해외 전파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geo centric**



작품명 **폐플라스틱의 재탄생**

플라스틱의 순환은 지구의 순환이니까
SK지오센트릭은
대규모 재활용 단지를 조성하여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새로운 가치로 만듭니다

Hi

SK지오센트릭의

그린픽처

與野 대표, 각각 천안·서울 종로 방문... 후보자 본격 지원

한동훈, 결의대회 취소 후 지역순회 충청지역 '캐스팅보트' 고려 일정

이재명, 광상언 후보 사무소 방문 후 창신시장서 노 전 대통령 의지 언급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5주 남짓 앞둔 4일, 나란히 지역에 방문했다.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총선 격전지 순회 출발점으로 충남 천안을 선택했다. 충남 천안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갑·을·병 모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패배한 지역이다. 국민의힘은 천안 갑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단수추천(단수공천)했고, 을·병 지역구는 경선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한 위원장은 기존에 계획했던 '4·10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취소하고 지역순회 일정을 시작했다. 총선이 불과 5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당원보다는 시민의 접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 대비 지역 방문 첫 일정이 충남 천안인 이유는 충청 지역이 '캐스팅 보트'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천안 방문 일정에 대해 "오늘부터 저희 후보가 정해진 지역 위주로 지역 일꾼과 함께 지역 시민들께 인사드리는 일정을 시작한다"면서 "충청 시민들께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오겠다"며 각 오를 다졌다.

이날 한 위원장은 충남 천안 소재 백석대를 방문, 새 학기를 시작한 대학생들과 타운홀미팅을 했다. 이어 천안중앙시장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장을 돌며 시민들을 만났다.

한편 한 위원장은 충남 천안을 시작

으로 충북 청주, 경기 수원, 경기 성남, 경기 용인 등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를 찾았다. 종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광상언 변호사가 단수공천을 받은 지역이다. 광상언 민주당 후보는 국민의힘 현역 최재형 의원, 민주당 출신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경쟁한다.

또 종로는 역대 대통령 세 명을 배출한 '정치 1번지'이며,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98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종로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보수·진보정당 전적을 살펴보면 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광상언 종로구 후보(오른쪽)가 4일 서울 종로구 창신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18대 총선 당시엔 보수정당이 승리했지만, 19대 총선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소속으로 탈환에 성공했다. 그 이후 21대 총선까지는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종로에 출마한 광상언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뒤 창신시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사무소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노 전 대통령의 꿈인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대동 세상을 광 후보가 종로에서 이뤄줄 것이라 믿는다"며 "이제 우리가 다시 희망을 되살리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역사적 전진에 광 후보가 최전선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신시장으로 이동한 이 대표는 입구에서 시민들에게 "모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준비가 됐는가"라며 "만드시 심판하자"고 외쳤다.

시장을 둘러본 이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나라살림을 하는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무능·무책임·무대책에 무관심까지 한 것에 대해 회초리를 들어서 혼을 내야될 때"라며 "이번 총선이 바로 그렇게 혼을 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임종석 "민주당 결정 수용, 당 잔류"... 갈등 봉합 수준

임, 전날까지 새로운미래와 협상 이재명 "원하는 공천 못해 안타까워 모두 힘 합쳐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서울 중구성동구갑 공천 배제 논란으로 탈당까지 검토하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돌연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힘을 합쳐주시면 더욱 고맙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임 전 실장과 전날(3일)까지 협상을 했던 새로운미래는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도전장을 내민 임 전 실장 대신 서울 종로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최고위의 재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까지 했으나, 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일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임종석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며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임 전 실장의 공천 배제와 설훈 의원의 탈당 흥영표 의원의 공천 배제까지 더해지며 비명계 중진의 집단 행동이 예고되자 이날 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는 이들과 물밑

협상을 지속하며 '세불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이 이날 아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에 남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명계를 규합하는 '민주연합' 구상을 꼬이게 됐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고문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실은 어제(3일) 저녁 7시에 이 공동대표가 임 전 실장에게 전화했을 때도 탈당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3일 광주 지역구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임 전 실장과 함께 정치를 하기 위해 이를 미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현 고문은 "이낙연 공동대표가 광주 출마를 구태여 시간이 바빠서 연기했겠나"라며 "그걸 연기했을 때는 광주와도 뭔가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께서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셨다"며 "우리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공천을 해드리지 못했고 이 점에 대해선 임 전 실장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면에서 훌륭한 후보감이시지만 당의 입장에서 전략적 판단 상으로 해당 지역은 전현희 전 위원장이 훨씬 더 필요한 후보라 판단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이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갈 수 있도록 우리 당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향후 임 전 실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

대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것은 없다"며 "임 전 실장도 당과 국민의 승리를 바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 공동대표는 "먼저 광주전남의 많은 분께 사과드리고 싶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부적절하게 거론했던 일을 거듭 사과드린다"며 "제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실패해 상심하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 지난 대선 때 저는 후보보다 더 많이 유세하며 노력했으나 결국 패배해 미안하다. 특히 당을 나와 당원 여러분께 걱정을 드린 것이 몹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민의힘 공관위, '국민추천제' 논의 시작

여당 강제 지역에 적용될 것 전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일부터 '국민추천제'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추천제는 서울 강남과 대구 경북(TK) 등 여당 강제 지역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후보 공모 및 선정 방식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추천제는 일반시민 등 외부의 다양한 추천을 받아 후보자를 공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갑에 국민추천제를 시작한다면, 당은 일정 기간 후보를 추천받아 심사한 후 결정하

다고 보면 된다. 일반시민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추천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추천제가 대두된 것은 국민의힘 공천이 7부 능선을 넘었을 시점부터였다.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 '현역 불패' '친윤 공천' '무감동 공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같은 논란을 완화하려는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이날 기준으로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의원 90명 중 교체된 이들은 13명(14.44%)이다. 4년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공천이 배제된 현역의원

만 19명이었으며, 교체율은 40%가 넘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미래통합당이 무리한 '물갈이'를 하면서 당력이 흩어져 패배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무감동 공천'이라는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6일 장동혁 사무총장은 "현역 의원 교체 비율 등을 보완하기 위해 공관위에서 여러 논의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역 교체율이 낮다는 비판을 의식해 나온 방안인 셈이다.

또 지역구 공천 결과 후보자들의 평균 나이가 50대 후반이며, 여성 후보는 전직 지역구 의원 수 대비 10%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공천이 곧 당선'인 텃밭 지역에서 정치신인을 기용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기도 한다. 그럴 경우 해당 지역 현역의원들은 불출마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전날(3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저희 입장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좋은 곳, 잘 봐주시는 곳을 비우겠다는 것"이라며 "그곳을 싹 비우고 개파나 당과 관계없이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 해결하지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제는 텃밭이면서도 현재까지 공천이 보류된 지역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의힘 공관위는 서울 서초을(박성중), 강남갑(태영호)·을(박진)·병(유경준)과 대구 동갑(류성걸), 북갑(양금희), 달서갑(홍석준), 경북 구미을(김영식), 울산 남구갑(이체

익) 등 지역에 대한 공천을 보류했다.

특히 강남갑·을의 태영호·박진 의원은 당의 요청에 따라 서울 구로을과 서대문을로 이동했다. 지역구가 비워진 만큼 전략공천도 예상됐지만, 국민추천제를 통해 후보를 정할 가능성이 높다. 울산 남구갑의 이체의 의원의 경우 컷오프(공천배제)가 거론되면서 국민추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결과는 5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공관위원들과 최종적으로 토의해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다!다!우
기다!♡

하나뿐인 내 편,
임영웅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웅은 하나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황병우 DGB 회장 내정자, 은행장 겸직 유력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행장 공백 우려에 겸직 가능성 ↑
 선임 절차 최소 3개월 이상 걸려
 주총 이후 겸직 여부 논의 될 듯

황병우대구은행장이 DGB금융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으로 낙점되면서 황병우가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겸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도 취임 초기에 대구은행장을 겸임한 바 있다. DGB금융에 강력한 리더십 재탄생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은 이달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황병우 회장 선임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임기는 오는 3월 말 시작한다.

국내에서는 지주사 회장이 은행장을 겸임하는 사례가 드문 만큼 황병우의 취임 이후 행장직 겸임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DGB금융은 황병우의 회장 취임 이후 행장 겸임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황병우 DGB대구은행장

DGB금융 관계자는 “회장 후보 단독 추천 안건을 우선 의결해야 하는 만큼, 차기 대구은행장에 대해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황병우의 임기가 오는 12월까지로 1년 미만을 남겨두고, 대구은행장 승계 프로세스가 재임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는 만큼 겸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DGB금융 회장이 대구은행장을 겸임하는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도 취임 초 대구은행장을 겸임했고, 전임자인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도 임기 동안 대구은행장

을 겸임했다.

특히 김 회장은 대구은행장 겸임 당시 강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하이투자증권 인수, 그룹 핵심 인재 육성 프로세스 도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성사시킨 바 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만큼 행장을 공석으로 두기 어렵다는 것 역시 황병우의 겸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요인이다. 은행장 선임에는 내·외부 후보군 선정, 이사회 평가 등의 과정에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 인사인 김태오 회장의 취임 당시에는 DGB금융 내부에서 김 회장의 대구은행장 겸임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했지만, 황병우는 DGB금융 내부 인사인 만큼 겸임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금융권에서는 황병우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직접 이끌었던 만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이후 조직 안정화 및 영업망 확대 전략에 주안을 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황병우는 대구은행의 시중은

행 전환 이후 전략으로 기존 거점지역에 본점을 둔 ‘뉴 하이브리드뱅크’를 제시한 바 있다.

기존 거점지역 내 고객에게 영업점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한편 전국단위 거점 영업점을 설치해 비대면 개인 금융 서비스, 맞춤형 기업 금융 서비스를 함께 공급하겠다는 것.

황병우는 “대구은행은 기존 대형 시중은행과 달리 전국의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를 포용하고,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시중은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병우의 회장 취임 이후 행장 겸임 여부는 3월 주총 이후 분명해질 전망이다.

DGB금융 관계자는 “은행장은 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고, 선임 절차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회장 후보 확정 안건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은행장 겸임 여부 및 임기에 관한 내용은 3월 주총 이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카드 News

NH농협카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상생 페스티벌 진행

NH농협카드가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마련했다.

◆ 행사상품 최대 50% 할인

NH농협카드의 ‘NH농협카드 상생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못난이 채소 ▲친환경 농축산물 ▲지역특산물 등을 할인한다. 이달을 시작으로 오는 6·9·12월에도 상생페스티벌을 통해 우리 농산물 소비를 독려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가맹점 10곳이 참여했다. 각 가맹점에서 NH농협 개인카드로 행사 상품을 구매하면 최대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학생증체크카드 고객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신한카드가 금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을 진행한다.

◆ 카드 이용 관련 교육 콘텐츠 발송

신한카드는 학생증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대학생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발급 신청 완료 문자와 함께 카드이용 및 신용 관리에 관한 내용을 발송한다. ▲체크·신용카드의 차이점 ▲할부 ▲리볼빙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카드 서비스의 주요 특징과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맞춤형 금융교육은 지난해 12월 금융교육협의회에서 논의된 청년 금융교육 강화 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시범 사례다.



KB국민카드

창립 기념일 맞아 걷기 기부 캠페인

KB국민카드 임직원이 어린이들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캠페인을 단행한다.

◆ 아동 소원 성취 후원금 조성

KB국민카드는 창립 기념일을 맞아 임직원이 참여하는 희망 걷기 기부 캠페인, ‘위시(WE:SH) 드림’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소원 성취를 응원하기 위해 진행한다. 임직원들이 3월 한 달간 목표 기부 걸음 수 1억보 이상을 달성하면 오는 5월 어린이날을 기념해 555명의 아동에게 선물 비용을 후원한다.

전 임직원이 일상에서 참여하는 건강한 기부 문화 정착과 함께 ‘걷기 기부’를 통한 저탄소 생활도 실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선 기자

이문구 “수익 극대화로 초우량 보험사로 성장시켜야”

동양생명 신임대표 취임

“영업 핵심 좋은상품 개발 위해
 시스템·인력 최우선 구축할 것”

이문구 동양생명 신임 대표는 “규모의 성장을 통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인 안정적이고 튼튼한 수익구조를 구축할 것”이라며 “수익 극대화를 통해 동양생명을 초우량 보험사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4일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영업의 핵심인 ‘좋은 상품’ 개발을 위한 시스템과 인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이문구 동양생명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에서
 /동양생명

약 15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이사 소개 및 취임사 그리고 직

원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이 대표는 “영업 경쟁력 극대화에 힘쓰고 자산운용부문은 효율적인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시장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시장과 규제 환경 속에서 최소화된 관리 오류와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관리 부문에는 고도화된 데이터 관리 및 예측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해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조직내 소통과 상호존중을 통한 긍정적인 기업문화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임직원 한 명 한 명과 직접 소

통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회사와 조직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이라면 그 어떤 작은 목소리라도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경청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강조했다. 챗GPT를 활용해 작성한 취임사를 영상으로 제작해 선보여 임직원들이 나아가야 할 앞으로의 업무 혁신 방향성을 제시했다.

동양생명은 “취임사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는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며 “2024년에 입사한 신입사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등 공식 일정 첫날부터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우리은행 청년층 최초 대출 고객 금융교육 알림톡 발송

우리은행은 금융교육 알림 톡 발송을 4일 시작했다.

금융교육 알림 톡 발송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청년 금융교육 강화방안에 따라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최초로 대출을 받는 2030 청년층 고객에게 인증된 금융교육 콘텐츠를 안내 메시지와 함께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발송하게 된다.

이번에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금융교육 콘텐츠는 대출을 처음 접하는 청년층 고객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영상으로 구성된다. ▲이자율 ▲대출한도 ▲대출 상환 방법 등 올바른 대출관리 방법을 안내해 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보유 뒤 개인거래 가능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거주무 5년, 전매제한 10년

앞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개인 거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작년말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해야 했다. 매각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

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번 법령 개정에는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거주무 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기간 중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할 경우 거주무기간 경과 전에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거주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LH(또는 공공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취득 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반 비용을 더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제공된다. 제공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전매 제한된 주택에 대해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는 경우 그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한 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오닉5’ 더 멀리 간다... 현대차, 전기차 상품성 개선 박차

‘아이오닉5’ 부분변경 모델 출시
배터리 성능 향상... 485km 주행
“전기차 선도기업 입지 공고히”



현대차 더 뉴 아이오닉 5 전측면.

국내 전기차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주행거리와 첨단 편의 사양을 강화한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의 부분변경을 출시하면서다. 전기차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면서도 가격은 이전 모델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놓았다.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부분변경과 연식변경을 진행하면서 첨단 기술을 도입. 가격을 인상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4일 현대차는 전기차 ‘더 뉴 아이오닉 5(이하 아이오닉 5)’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아이오닉 5는 2021년 출시 이후 3년여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로 향상된 배터리 성능과 다채로운 고객 편의사양,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아이오닉 5는 84.0kWh의 4세대 배터리가 탑재돼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복합, 2WD 모델 기준)가 458km에서 485km로 늘어났다.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지만 4세대 배터리를 적용해 급속 충전 속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350킬로와트(kW)급 초급속 충전 시 18분 이내로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최신 인포테인먼트·편의 사양이 대거 적용돼 상품 경쟁력이 강화됐다.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connected car Navigation Cockpit)’

를 탑재하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Over-the-Air)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고객에게 SDV 기반의 첨단 소프트웨어 경험을 제공한다. 또 승차감과 정숙성이 향상돼 전반적인 주행 감성이 높아졌으며 2열 사이드 에어백 추가와 차체 보강을 통해 충돌 안전 성능이 더욱 향상됐다.

이 외에도 기존 모델의 독창적이고 미래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보다 강인한 느낌의 외장과 편의성을 높인 내장 디자인을 갖췄다. 아울러 역동적인 감



현대차 아이오닉 5 사이드 디지털 미러.

성을 강조한 N 라인 모델이 새로 추가돼 고객 선택권을 넓혔다.

더 뉴 아이오닉5 판매가격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했다는 점에서 인하했다고 볼 수 있다. 아이오닉 5는 전기차 세제혜택 후 기준으로 롱레인지 모델 ▲E-Lite 5240만원 ▲익스클루시브 5410만원 ▲프레스티지 5885만원이다.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에 따라 실제 구매가격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중형 전기차의 가격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테슬라는 지난해 하반기 선제적으로 모델

Y 가격을 2200만원 가량 할인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KG모빌리티는 토레스 EVX 판매가를 당초 사전계약때보다 낮춰 4000만원 후반대로 책정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올해 전기차시장의 성장세 둔화에 따라 더 뉴 아이오닉 5 판매목표를 1만3500대로 지난해 판매량(1만6605대)보다 소폭 낮춰 잡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뉴 아이오닉 5는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자 배터리 성능 향상, 편의 사양 추가 등을 통해 전반적인 상품성을 대폭 끌어올린 모델”이라며 “국내 전기차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 소형 SUV 코나 전기차의 연식변경 모델과 디자인 특화 패키지 모델 아이오닉6 블랙에디션도 함께 출시했다. 2024 코나 일렉트릭은 기본형 프리미엄 4352만원부터다. 연식변경인 2024년형 아이오닉6는 스탠다드 모델 익스클루시브 5000만원, 롱레인지 E라이트 5060만원부터로 주요 트림마다 200만원씩 낮췄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디앤디-SK이터닉스 인적분할 완료

‘부동산·신재생에너지’ 전문회사 새출발

이종사업의 디스카운트 해소
전문성 강화로 기업가치 제고

SK디앤디(SK D&D)가 인적분할을 완료하고 새롭게 출발한다.

SK디앤디는 이사회를 열고 SK디앤디(존속회사)와 SK이터닉스(신설회사)로의 인적분할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SK디앤디는 부동산 사업을, SK이터닉스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회사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이번 인적분할은 부동산과 신재생에너지 두 이종사업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전문성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결정됐다. 인적분할을 통해 부동산과 신재생에너지가 각각의 회사

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해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분산되었던 역량을 집중해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가치 사슬 확장에도 동력을 더할 방침이다.

SK디앤디는 종합 부동산 전문회사로 발돋움한다. 부동산 업계 선두 디벨로퍼 지위를 굳건히 하는 한편, 공간 플랫폼 및 리빙 솔루션 사업에 박차를 가해 ‘리빙플랫폼’ 기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 파트너사와의 공동사업, 자산운용 전문 자회사인 디앤디인베스트먼트(DDI) 및 부동산 운영관리 전문 자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DDPS)와의 시

너지, PF조성 등을 통해 사업모델을 다각화해 나가며 기업 가치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SK이터닉스는 4일 이사회를 창립 총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전문회사로 새롭게 시작한다. SK이터닉스는 태양광, 풍력, ESS, 연료전지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국내 톱티어 친환경에너지 발전사다. 이번 분할로 투자 자원 확보, 전력중개, ESS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사업분야를 확대해 나가며 경쟁력을 더욱 견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사의 분할비율은 순자산가치를 고려해 SK디앤디 약 77%, SK이터닉스 약 23%다.

/차현정 기자 hyeon@

금호타이어, 사우디 블랏코에 기술 수출

20년간 타이어 생산기술 전반 지원

금호타이어가 중동의 최대 자동차 소비국이자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블랏코’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금호타이어 용인중앙연구소에서 금호타이어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 조만식 연구개발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우디 주한 대사 사미 알 사드한을 비롯해 블랏코 회장 압둘라 알와히비, 압둘아지즈 알 오리니 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블랏코에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지역에 판매되는 승용 타이어 생산 전반에 필요한 기술을 20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와 계약을 맺은 블랏코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비전 2030 정책에 따라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조기업으로, 2027년까지 사우디 서부 산업단지에 약 8만 5000평 규모의



사우디 주한 대사 사미 알 사드한(왼쪽부터), 블랏코 회장 압둘라 알와히비, 금호타이어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달 28일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에서 ‘금호타이어-블랏코’ 기술수출 계약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타이어 공장을 완공 및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랏코는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시장에서 타이어 생산 및 판매 등을 통해 모빌리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계약이 기술 수출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사우디 및 중동 자동차 산업 및 시장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삼성메디슨, 초음파·조영제 등 첨단의료 분야 개척

브라코이미징 업무협약 체결

삼성메디슨이 첨단의료 기술을 글로벌로 확대한다.

삼성메디슨은 지난달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2024 유럽영상의학학회(ECR2024)에서 브라코이미징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초음파 진단기와 조영제 활용 신규 진단 영역 개척을 위한 내용으로, 초음파 진단기 경쟁력을 높여가는 삼성메디슨과 초음파 조영제 시장 전 세계 1위 업체인 브라코이미징이 기술력과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모아서



브라코이미징 폴비오 레놀디 브라코 대표와(왼쪽) 삼성메디슨 김용관 대표(오른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메디슨

너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양사는 MOU를 통해 양사는 초음파 진단기와 조영제 품질 강화 및 활용

도 확장을 위한 공동 연구를 검토 중이다. 초고해상도 진단 영상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도 함께 진행하며 의료진 교육이나 전시 참여 등 글로벌 마케팅에도 상호 협력한다. 조영제 및 약물 운반체 기술을 의약품과 결합한 신규 시장 개척 등도 기대하고 있다.

삼성메디슨 김용관 대표는 “브라코사와 글로벌 협력을 통해 초음파 진단 분야 역량 강화 및 미래 초음파 치료 분야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삼성메디슨은 다양한 초음파 임상 응용기술 및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진단의 정확도와 적용 범위를 더욱 넓혀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LG전자, 글로벌 상담센터 전문성 강화

우수 인재 파견 등 노하우 전수

LG전자가 상담 서비스 노하우를 전 세계로 확대한다.

LG전자 자회사 하이텔서비스는 올해부터 글로벌 상담센터 역량 제고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하이텔서비스는 우수 상담 컨설턴트와 조직 운영 전문가로 내부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고 노하우와 인재 육성,

조직 운영 방안 등을 전수할 예정이다. 지역별 서비스 편차를 줄이고 수준을 고르게 높이기 위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체계적인 컨설팅도 제공한다.

LG전자 고객가치혁신부부장 정연채 부사장은 “해외 상담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해 글로벌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韓 기업, 수소경제 핵심 '그린 암모니아' 기술 개발 본격화

2030년엔 연평균 6.51% 성장 전망
포스코홀딩스, 블루암모니아 협력
롯데정밀화학, 사빅·마덴 수입계약

최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암모니아가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수소 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암모니아 산업에 적극 투자하며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암모니아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782억6000만 달러에서 2030년에는 약 1296억3000만 달러를 돌파하며 연평균 6.5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를 발전원으로 사용하면 탄소가 발생하지 않고 물만 배출돼 친환경적이다. 다만 기체수소 자체로는 폭발 위험과 부피가 커 저장이나 운송하는 데 효율성이 높지 않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폭발 위험을 줄이고 부피도 기체수소보다 800분의 1에 그치는 액화수소 생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액화수소처럼 안전성도 높으면서 동일 부피에 더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해 운송할 수 있는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



롯데정밀화학 염소계열 공장.

/롯데정밀화학

니아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암모니아는 끓는 점이 영하 33℃로 액화하기 쉽다. 저장·운송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어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세계 최대 암모니아 생산기업인 씨에프인더스트리즈와 미국 내 블루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블루암모니아는 CCUS(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블루수소로 만드는 암모니아다. 포스코홀딩스는 향후 루이지애나 프로젝트에

서 생산되는 블루암모니아를 국내로 운송한 뒤 수소로 전환해 수소환원제철 및 수소혼소발전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의 자회사인 롯데정밀화학은 50년 이상 암모니아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암모니아를 열분해 해 수소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천연가스 회사인 사우디아람코의 자회사 사빅(SABIC), 마덴(Ma'aden)과 청정 암모니아 수입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5만톤의 블루 암모니아를 수입함으로써 청정 암모니아 공급망을 추가 확보

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청정 암모니아 공급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급부상 중인 암모니아 중에서도 더욱 주목받는 것은 '그린 암모니아'다. 그린 암모니아는 풍력이나 태양광으로부터 발생한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 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대기 중의 질소를 합성하여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특히 SK에코플랜트는 그린 암모니아 사업에 참여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2월 이집트 신재생에너지청(NREA), 국영송전회사(EEPC) 등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그린수소·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 500MW(메가와트)와 육상풍력발전 278MW 등 모두 778M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한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250MW급 수전해기를 통해 그린수소를 생산한 뒤 저장과 운송이 상대적으로 쉬운 그린암모니아로 변환해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암모니아는 수소 경제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해외 진출과 협업을 통해 생산 및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술 개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셔틀탱커.

삼성중공업 셔틀탱커 1척 건조계약 올 수주목표 39% 달성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지역 선주와 셔틀탱커 1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 선박은 2026년 8월까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셔틀탱커는 해양플랜트에서 생산된 원유를 선적해 육상 저장기까지 운송하는 특수 목적 선박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8척(LNG운반선 15척·VLAC2척·셔틀탱커1척), 38억 달러를 수주해 올해 수주 목표 97억달러의 39%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LNG운반선, 암모니아운반선, 셔틀탱커 등 다양한 선종에서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수주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현대모비스, 전동화·자율주행 등 미래사업 역량 강화

미래모빌리티 1200여건 특허 출원
지난해 국내외 합쳐 총 2500여건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다수 특허를 출원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전동화, 자율주행, IVI(자동차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사업 분야에서 1200여건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현대모비스가 국내외에서 출원한 전체 특허 건수의

절반에 달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국내외를 합쳐 총 2500여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특히 전동화,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발명자와 담당 조직, 기술별 전담 변리사가 특허 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개발과 설계, 상세 특허 도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각적으로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특허 확보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열린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현대모비스는 직원들이 창의적인 연구 개발 환경에서 특허 발명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달 29일 열린 사내 '특허 어워즈'에서 특허 발명 우수 직원과 조직에게 총 1억원의 포상을 진행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모비스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기술연구소에서 '2024 특허 어워즈'를 개최하고 특허 발명 우수 직원과 조직에 총 1억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현대모비스

LGU+ 제네시스 시리즈에 'U+모바일tv' 탑재

LG유플러스가 지난해 9월 ccNC(현대자동차그룹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가 적용된 현대차·기아에 동영상이 스트리밍 서비스 'U+모바일tv'를 제공하는 데 이어 올해에는 적용 차량을 제네시스 시리즈로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제네시스 시리즈에 U+모바일tv를 탑재했다고 4일 밝혔다.

U+모바일tv가 지원되는 차량은 ccIC와 고급형 6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전체 모델이다. 적용 방식은 무선(OTA) 업데이트를 통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가 자동 반영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요금은 제네시스 스트리밍 플러스(월 77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별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차량용 U+모바일tv는 뉴스, 아동, 음악, 예능, 스포츠 등 총 15가지 실시간 채널을 시청할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다.

송신소와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송출하는 DMB 방식과 달리 커넥티드카에 직접 통신을 전송하기 때문에 터널, 지하주차장 등 음영지역에서도 끊김 없이 시청할 수 있어 운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워크데이 지난해 영업익 1.8억달러 구독매출 전년비 19% ↑

솔루션 기업 워크데이가 지난해 연 매출이 전년 대비 17% 성장한 73억 달러(9조 7068억원)를 내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4일 워크데이가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회계년도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대비 17% 늘어난 매출액 73억 달러에 영업이익 1억 8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워크데이의 총 구독 매출도 성장해 전년 보다 19% 늘어난 66억달러로 총 매출의 90.4%에 이르렀다. 현재 총 구독 매출 수주 잔고는 20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12개월과 24개월 구독 매출 수주잔고 모두 전년 대비 20% 늘었다. /김서현 기자 seoh@

HMM, 대체연료 도입 등 '해상 탄소절감 서비스' 속도

독일 헬만과 '그린세일링 서비스'

HMM이 독일 물류기업 헬만과 탄소 감축량을 제공하는 '그린세일링 서비스' 첫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HMM의 그린세일링 서비스는 저탄소 연료를 선박에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줄인 탄소 감축량을 거래하는 것으로 글로벌 해운사와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친환경 서비스다.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차원에서 탄소 배출 저감에 힘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원자재 생산, 제품 운송, 제품 사용 등 기업의 영향력 범위 외에서 발생하는 탄소 저감(Scope 3)에까지 확



HMM 여의도 본사에서 진행된 '그린세일링 서비스' 계약 체결식에서 노이만 헬만 글로벌 FCL 총괄(왼쪽)과 김신 HMM 컨테이너사업 부문장이 서명을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산하고 있다.

HMM은 지난해 하반기 국내 최초로 선박 연료에 친환경 '바이오선박유'를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줄

였다. 이 같은 감축량에 대한 스콥3 권리를 독일 헬만에게 이관하는 것이 이번 계약의 골자다.

글로벌 물류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해운사들은 바이오선박유, 메탄올 등 대체 연료를 도입하며 탄소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HMM도 바이오선박유 사용량 확대, 대체 연료 도입, 다양한 협력방안 개발 등을 통해 '그린세일링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HMM 관계자는 "친환경 운항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그린세일링 서비스는 친환경 정책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 행사개요

- **행사명:**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 **일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 **장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 **등록:** <https://onoffmix.com/event/293926>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 **문의:** 오가노이드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 VP Tea 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4:00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섹션1	14:00~15:4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Robert Coppes Prof 강연2: Ryuichi Okamoto Prof 강연3: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강연4: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브레이크타임	15:40~15:5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섹션2	15:5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임승원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등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폐회	17:00	

주최: metro경제

후원: 충청북도 CHUNGCHONGBUK-DO

日 증시 초강세... 4만선 넘어서

일학개미, 반도체 종목 대거 순매수

총 1억4658만달러어치 사들여
닛케이지수 올해 들어 19% 상승
美 증시 엔비디아 강세에 수혜

일본 증시 대표지수가 4만 선을 넘어서는 등 초강세인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의 일본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엔비디아발 인공지능(AI) 반도체 열풍,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 수혜 등의 특급 재료를 가진 일본 증시의 반도체 종목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월 한달간 국내 투자자들은 일본 증시에서 총 1억4658만달러(1950억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1779만달러(238억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에 비하면 대조적인 모습이다. 일본 증시 보관금액도 지난달 29일 기준 39억1499만달러(5조968억원)로 미국(721억달러·96조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대거 사들이는 배경은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 지수)가 연일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닛케이지수는 19%가량 오르는 등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이날 처음으로 4만선을 돌파, 종가기준 전일보다 0.50%(198.41) 오른 4만109로 사상 최

〈국내투자자 일본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기간: 2월 1일~29일)

국가	종목명	순매수액
일본	도쿄일렉트론	646만달러
일본	어드반테스트	265만달러
일본	이토추	244만달러
일본	캐논	214만달러
일본	화낙	213만달러

/예탁결제원

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강세를 보이자 일본 반도체 기업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 반도체 종목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고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도쿄일렉트론이다. 이 종목을 646만달러어치 매입했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기업 어드반테스트도 265만달러어치 사들였다.

도쿄일렉트론은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따른 수혜 등이 겹치면서 지난 달에만 주가가 32% 뛰었으며 같은 기간 어드반테스트도 19%가량 올랐다.

증권사들이 올해 일본증시에서 눈여겨볼 종목으로 반도체를 제시하고 있

어 이같은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와 기업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자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 속에서 일본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몸집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반도체 업종은 그동안 상승세가 빨랐던 만큼 추가 부담이 상존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과 정책 모멘텀이 반영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은혜 삼성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상위 15개 중 8개가 일본 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일본은 반도체 투자에 20조 원 이상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정책적 성장 기반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장외파생상품 CCP, 청산개시 10주년

거래소, 청산잔고 2000조 넘겨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가 청산 개시 10주년을 맞이했다며, 청산잔고도 2000조원을 넘겼다고 4일 밝혔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 도입은 2009년 G20 합의에 따른 것으로 거래소는 2013년 9월 청산업 인가를 받아 원화 이자율스왑에 대한 청산 서비스를 개시했다. 거래소는 CCP로서 다자간 차감을 통해 결제 규모를 축소했으며, 결제 이행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파산 시에도 연쇄도산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왔다.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의 연간 청산금액은 2014년 213조원에서 2023년 1280조원으로 약 6배, 연평균으로는 약 24% 성장했다. 2024년 2월 말 기준으로 청산잔고는 2086조원을 넘기면서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2022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원화이자율스왑을 통한 헤지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이 중 만기 1년 이하 거래의 청산증가가 두드러진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외국계은행 17사, 증권사 23사, 국내은행 13사, 보험 5사, 자산운용 6사 등 총 64개사 청산에 참여하고 있다. 2014년 청산 도입 초기에는 국내은행의 비중이 높았으나 2016년 이후에는 외국계 은행과 증권사가 청산을 주도했다.

외국계 은행의 경우 거래소가 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격CCP 인증을 취득한 이후 청산 참여가 증가했다. 증권사의 경우 CCP청산을 계기로 낮은 신용도 문제가 해소돼 청산 참여가 지속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는 금리 역전에 따른 헤지 거래로 가장 높은 청산거래비중(46%)을 기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예탁원, 부산 증권박물관 개편 후 재개관

4개 전시실 중 테마 전시실 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부산 증권박물관이 상설전시실 부분 개편을 마치고 전면 재개관한다고 4일 밝혔다.

증권박물관은 증권이 만든 세상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자본시장 역사를 다 양한 증권유물과 함께 전시하고 있다. 이번 부분 개편은 4개의 전시실 중 마지막 공간인 테마 전시실을 개편했다.

이로써 테마 전시실은 전 연령대가 보다 쉽고 흥미롭게 다양한 증권이야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공간으로 탈바꿈됐다. 특히 어린이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시설물을 설계하고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게 예탁원 측 설명이다.

주요 체험전시물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과 관련 증권을 알아보는 ‘생활 속 증권’,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증권을 미디어 연출로

볼 수 있는 ‘증권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국가별로 유명한 회사의 증권 이미지에 본인의 얼굴을 넣은 증권을 직접 만들어보고 기념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나만의 증권 만들기’ 등이 새로 설치됐다.

이외에도 예탁원은 관람객 맞춤형 도슨트 전시해설프로그램을 상시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개인 관람객의 전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국·영문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도 최근 도입해 제공 중이다.

증권박물관에선 이번 상설전시실 부분 개편을 기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람 인증 기념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하며, 향후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법정공휴일 및 일요일은 휴관이다. /원관희 기자

양회·증시 부양조치 등에 기대감 ↑
차이나 디스카운트, 이젠 해소될까

상해종합지수 한 달간 8.6% 올라
양회서 성장목표·처방전 발표 관련
부동산 침체 장기화 우려 지적도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시작되면서 중국 증시가 반등을 이 어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준 중국 본토 증시에서는 상해종합지수가 한 달간 8.6% 상승하면서 3000선을 회복했으며, 심천종합지수 역시 같은 기간 11.7% 상승했다. 홍콩증시에서도 같은 기간 홍콩항셱지수가 7.6% 올랐고, 기술주는 홍콩항셱테크와 과창판50이 각각 16%, 19.1% 올라 상승 폭을 더 확대했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쏟아낸 증시 부양 조치에 더해 양회를 앞두고 정책 기대감까지 반영된 결과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 재개와 춘절 연휴 동안 활동성 소비지표 개선, 낙폭 과대에 따른 증시로의 유통성 유입 등으로 중국 증시가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관건은 양회에서 발표될 성장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처방전이 어떻게 나올지다.

전국민정치협상회의가 이날 개막했고,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주요 정책

이 공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5일 시작된다.

작년 양회가 시진핑 집권 3기를 공고히 하는 자리였다면 올해 화두는 경제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재정 압박이 커진 지방정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설정했지만 중앙 정부는 2035년 경제 규모를 2020년 대비 2배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공격적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부동산 등 대내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경기 부양 의지를 강도 있게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면 중국 경제심리가 개선될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중국 증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그간의 반등을 감안해도 지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다.

신승용 신영증권 연구원은 “상해종합지수의 주가 수준은 10배로 지난 10년 하위 12%에 해당하며, 기술주 중심의 차이네스트는 하위 3% 수준”이라며

“중국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 정책 강화를 고려해 상해종합지수 하단은 2800, 상단은 정책 리스크 해소에 따른 가치 재산정을 가정해 3250선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원은 “2023년과 반대로 2분기 중국의 디스플레이 완화와 성장률,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며 “상반기 상해종합지수와 항셱지수 예상 지수밴드를 각 2910~3450선, 5270~7100선으로 제시하며 비중확대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정책 역시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재정부족과 부채위험으로 이번 양회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이 출시될 가능성은 낮다”며 “부동산 경기와 소비회복이 지연되면서 2분기 이후 부양정책 동력은 약화되는 반면에 부채 리스크에 대한 경고음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기술적 반등을 활용한 비중 축소 전략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상해종합지수가 양회가 개최되는 3월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2010년부터 5차례에 그친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3월 수익률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투자증권, 청년 동행 적립식 특판 RP

연 7% 우대수익률... 선착순 4000명

신한투자증권은 만 19세~39세의 청년층(1984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을 대상으로 세전 연 7%의 우대수익률을 주는 ‘청년 동행 적립식 특판 RP’를 4일부터 29일까지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적립식 특판 RP는 선착순 4000명까지 신규 및 기존 개인고객 모두가 가입 가능하다. 단, 지난해 8월~9월 진행했던 적립식 특판 RP 기가입 고객(해지 고객 포함)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간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6개월간 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만기는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며, 중도 해지 시 세전 연 1.0%가 적용된다. 환매조건부채권(RP)은 주로 국공채, 지방채, 통안채 및 우량 등급 회사채 등을 담보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약속된 이자와



/신한투자증권

원금을 지급하는 ‘환매를 조건으로 한 채권’을 말한다.

이번 이벤트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해 고객, 사회와 함께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 고객과 함께 행복하자는 신한금융그룹 ‘동행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청년층 고객들에게 월 적립식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투자 습관을 기르는데 기여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신기술·투자 노하우 알려드려요”... 가짜·사칭 강의 ‘주의보’

유튜브 등 SNS서 가짜강의 판처 투자·다단계 사기수업 비슷하지만 ‘강의 제공’에 범죄로 분류 어려워 “검증된 학원의 강의자 이용하고 그마저도 면밀히 살피고 주의해야”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며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심리를 노려 강의를 판매하고 부당한 대가를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4일 (메트로경제)의 취재 결과 챗GPT 활용부터 유튜브 제작, SNS 팔로워 모으기 등 다양한 유형의 사적 강의가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천만원대에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많은 경우 유튜브나 SNS 인플루언서가 AI시대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간추렸으며 강의를 판매 하지만 실제 값어치를 하지 못하거나 약속한 수준의 1:1 코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듀테크 업계는 “강의자들은 모두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꾸며 말하지만



유튜브에 올라온 유명인 사칭 계정들. /캡처

만약 그렇다면 그에 상당한 이력과 작업물을 보여줄 것”이라며 “가장 좋은 것은 검증절차가 끝난 학원 등에 소속된 강의자에게 받는 것이지만, 이따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나타나는 강의·노하우 구매 피해 사례는 전통적인 투자·다단계 사기수업과 유사하지만 강의 내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범죄로 분류하기 어려워 피해자들의 대응을 더 어렵게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세무회계 업무만을 10년 가량 한 김민수(가명)씨에게 AI는

멀고 어려운 이야기였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건설사가 도산하며 일자리를 잃은 뒤 재취업에 번번히 실패하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기술이 새삼스럽게 보였다. 결국 김씨는 비전공자도 AI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자칭 AI 전문가 A씨에게 200여 만원의 돈을 냈다. 3만명 가량의 유튜브 팔로워를 확보한 A씨는 1:1 강습까지 약속했지만 김씨가 받은 것은 전공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강의 영상과 6개월 뒤로 잡힌 A씨와의 1:1 강습이었다.

김씨는 “주변에서 사기라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해보니 강의 수준은 주관적인 요소고, A씨가 개인 연락을 받아주는 것 또한 사실이어서 사기죄 성립 여부가 모호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아예 유명한 답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그맨에서 100억 자산가로 투자 노하우를 쌓은 개그맨 황현희를 사칭한 유튜브 채널과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강의를 하는 것처럼 속인 유튜브 채널도 등장했다. 송은이 등 대중적으로 호감을 쌓은 유명인들도 답페이크 범죄 타깃이 됐다. 개그맨 송은이는 SNS를 통해 “혹시나 피해 보시는 분들 계산까 싶어 알린다. 명백한 불법 광고이기에 신고도 하고 SNS에 조치를 취하는 요청도 했지만 쉽지 않다는 답만 받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인플루언서에게 SNS 인플루언서가 되는 비법을 듣는 강의를 구입한 이영진(가명)씨의 사례는 유명인 답페이크 범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마저도 아

닌 허구의 범죄였다.

평소 화장품과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이씨는 인플루언서가 되고픈 마음에 20만 명에 달하는 팔로워를 가진 SNS 뷰티 인플루언서 ‘B’의 강의를 구입했다. 30만원을 주고 산 PDF 파일은 글자 코드가 모두 깨져 읽을 수 없었고 이를 문의하자 B는 몇 차례 파일을 재전송해 줬으나 모두 읽을 수 없는 파일이었다. 일주일 후 B의 계정은 사라졌는데, 알고보니 B는 아예 피싱 조직이 만든 가짜 계정이었다. 이씨는 워낙 관련 인플루언서들이 많다 보니 자신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인플루언서의 콘셉트가 유학생이다 보니 팔로워에 외국인이 많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 못했다. 사진은 모두 중국 인플루언서들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짜깁기 한 것이었고, 친구처럼 보였던 댓글들조차 가상 계정이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로맨스캠으로도 활용된 계정이라는 이야길 듣고 못 잡겠구나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창업공간 신설

세종시에 ‘라이콘타운’ 1호점 개소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창업공간 ‘라이콘타운’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처음 문을 열었다.

중기부는 세종점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해 라이콘타운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4일 세종에서 라이콘타운 1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제2차 ‘소상공인 우문헌담 정책협의회’도 진행했다.

라이콘타운은 창의적인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성장, 나아가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개방형 종합 창업지원거점은 처음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2번째), 박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 첫번째) 등이 4일 세종 라이콘타운 1호점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약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국민은행이 힘을 합쳐 1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의 대표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민간투자연계형 매칭투자 등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2억원의 보증을 받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오영주 장관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지역소멸, 경쟁력이 부족한 서비스 산업 등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자, 우리 경제의 활력소”라며 “라이콘타운이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이 라이콘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동네상권까지 활력이 돌도록 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기보, 유동화회사보증 4000억으로 확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신규 도입

기술보증기금이 올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유동화회사보증을 전년보다 2배 늘어난 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도 새로 도입한다.

4일 기보에 따르면 ‘유동화회사보증(P-CBO)’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만든 후, 이를 자본시장에 매각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제도다.

올해 유동화회사보증은 미래 기술·산업 주도권 선점과 기술혁신을 이끌어 가기 위해 정책적·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인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영위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신성장 미래전략산업’은 ▲첨단제

조(우주항공,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소재·부품·장비) ▲에너지(차세대 원자력, 수소·미래에너지) ▲디지털·통신·서비스(네트워크, 보안, 양자기술, 지식서비스) ▲자동화(AI,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레드·그린·화이트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분야 18대 산업으로 구성된다.

기보는 또 올해부터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해 발행규모 중 400억원 가량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으로 발행함으로써 녹색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유동화 상품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1년간 이자비용(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태림포장 ‘제지물류’ 맞손

택배용 골판지 상자 공급 확대

물류업계 1위 기업과 포장재업계 1위 기업이 원활한 택배상자 수급과 효율적 제지물류 운영을 위해 손을 잡았다.

CJ대한통운은 4일 오전 서울시 종로 본사에서 태림포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CJ대한통운은 태림포장의 물류 운영을 담당하고, 태림포장은 CJ대한통운에 택배용 골판지 상자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택배 물량이 증가할수록 양사 모두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윈·윈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CJ대한통운은 먼저 물류 생산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태림포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오던 물류시스템에 대한 효율화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태림포장 공장에서 사용하는 골판지 원재료 수송 및 공장 내 물류를 수행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이를 통해 제지물류 사업도 본격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태림포장은 CJ대한통운에서 사용하는 택배상자 공급을 확대한다. CJ대한통운과의 협력으로 택배상자와 원자재 출이 증가할 뿐 아니라, 물류시스템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비용절감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승호 기자

인텔 FPGA 알테라 독립

인텔이 FPGA 사업을 다시 분사한다. 인텔은 알테라를 독립시킨다고 4일 밝혔다.

알테라는 인텔이 2015년 인수한 FPGA 기업이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육성하는 등 ‘IDM 2.0’ 전략을 발표하며 분사를 가시화한 바 있다.

인텔은 FPGA 시장이 재활성화할 기회가 생겼으며, 다양한 솔루션과 AI 기술을 제공하며 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최적화된 지적재산(IP)을 생성하는 FPGA AI 스위트와 오픈 비노, AI 추론 기능 통합과 CXL 등을 제시했다. /김재용 기자

벤츠코리아, 봄맞이 차량 무료점검 나서

2021년 4월13일 이전 등록차량 대상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구형 모델을 대상으로 봄철 안전 점검에 나선다. 벤츠는 4일부터 ‘2024 봄맞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2021년 4월 13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검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봄철 관리 및 안전 주행 필수 부품을 중심으로 한다.

벤츠는 ▲공기 정화 필터, 에어 필터 등 계절성 부품으로 구성된 ‘뉴스프링 패키지’를 20% 할인된 가격에,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브레이크액 등으로 구성된 ‘브레이크 패키지’를 2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패키지



가 아닌 개별 부품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이번 캠페인은 고객이 지난 겨울철 눈, 제설제 등으로 인한 차체 부식 및 손상을 점검하고, 봄철 미세먼지, 황사 등 불순물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김재용 기자 juk@

韓-인니, 전기차·배터리 등 미래 신산업 협력 이행 본격화

상반기 'e-모빌리티 센터' 가동
美 IRA 대응... 공급망 구축 논의
수입물량제한, 기업에 지원 요청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기차와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뿌리기술 인력양성 등 작년 9월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협력 의제들을 본격 이행한다. 또 유·가스전 탄소포집저장(CCS), 원전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병내 통상차관보가 3일~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양 차관보는 우선 지스만 피라다 후타줄루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총국장과의 면담에서 전기차, 핵심광물 공급망 및 청정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올해 상반기 '한-인니 e-모빌리티 협력센터'를 가동하기로 확인하고, 전기차·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광산, 정·제련소 투자 등 안정적인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협력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이어 안디 리잘디 산업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6차 한-중동 경제협력 실무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부 산업연구개발원장을 만나 산업 인력 양성, 수입규제 등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작년 9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산업부 간 체결한 '한-인니 산업협력 MOU'의 후속 성과로 '크라카타우 포스코(인니)-반뜰 폴리텍대학(인니)-뿌리산업 진흥센터(한국)' 간 '뿌리기술 인력양성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에 그간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양질의 산업인력 수급 원활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차관보는 이와 함께 인니의 수입 물량제한 등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인니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 차관보는 아울러, 현지 진출 기업 10여 개사가 참여한 지상사 간담회를 개최, 인니 및 아세안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한-인니 경제협력위' 등 양국 정부간 경제협력 채널 의제 등에 반영해 우리기업이 수출·투자 활동에 걸림돌이 없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국민편의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근로복지공단, 15개 기관 추가

근로복지공단은 4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지자체 등 해당기관에 보험료지원, 상병수당, 유급병가지원 등 신청 시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함과 처리 지연 등 애로가 있었다.

그간 국민이 지자체 등 해당기관에 보험료지원, 상병수당, 유급병가지원 등 신청 시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함과 처리 지연 등 애로가 있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 전체기업 130만개소의 고용보험 자격정보를 실시간 제공,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부문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발굴 등에도 기여했다.

공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5개 국가 및 공공기관에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개방을 추가로 추진한다.

지난 1월엔 고용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텍스에 연계해 근로자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를 제공했고, 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국민의 소명 절차를 생략했다.

또 검찰청·경찰청 등에는 정합성 높은 자격 정보를 신속 제공해 피의자 검거, 실종자 찾기 등 정부의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단의 질 좋은 데이터는 선제적으로 개방해 국민편의를 제공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도 적극 부응해 민·관·공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공동 활용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국민의 주거복지 경쟁력 키워나갈 것"

주금공 사장, 창립 20주년 기념사

최준우 주택금융공사(주금공·사진) 사장은 4일 주택금융공사 창립 20주년 맞이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질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나간다고 밝혔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주택금융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미래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공사가 이뤄낸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20년을 만들어야 한다"며 "변화를 파악하고 기회



를 찾아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미래 선도를 위해 전사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소통과 단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택금융 선도기관으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전세보증 등 주택보증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등 주택 관련 공공금융을 공급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저수지·사업장 등 환경문제 대응 나서

농어촌공사, 'ECO-4U센터' 출범

한국농어촌공사가 4일 'ECO-4U센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ECO-4U센터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할 시 '언제, 어디서나' 즉각 응답하는 메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원인분석, 해결 방안 제시, 사후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환경문제 해결 기구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과 건설 현장은 1만6327개소이다. 공사는 "실시간 환경모니터링,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 관리와 생태계 보전의 지속성을 더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전 세계적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가 증가하

면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는 '수질오염 기술지원단'과 '환경평가 기술지원단'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공사 직원을 비롯한 분야별 민간 환경전문가를 포함한 100여 명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둔 즉각적인 대응과 피해 방지에 초점을 뒀다.

또 전국의 사업 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환경과 관련된 상담, 자문을 지원하는 동시에 현장 조치 가이드북을 제작해 위기 상황 시 사전 대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더 나은 농어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공사의 기본 임무인 만큼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분뇨·음식물, 바이오가스 탈바꿈

환경부,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인천·경기광주 등 8개 지자체 선정

환경부가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 대상으로 지자체 8곳에서 신청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란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2종 이상을 한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선정된 8개 지자체는 △인천 △경기광주 △경기 과천 △강원 춘천 △강원 횡성 △충남 부여 △전남 목포 △전남 순천이다.

인천광역시와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정제하여 연료전지 시설에 판매할 예정이다. 경기 광주시는 음식물, 하수찌꺼기, 분뇨를 통합하여 처리한 바이오가스를 민간 기업과 협의하여 도시가스 및 연료전지 발전시설에 공급하게 된다.

경기 과천시와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처리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수소 생산에 활용한다. 강원 춘천시는 음식물, 하수찌꺼기, 분뇨를 통합 처리하고 바이오가스를 수소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원 횡성군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우분을 포함한 가축분뇨를 통합 처리할 계획이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횡성군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공급한다.

충남 부여군은 가축분뇨와 음식물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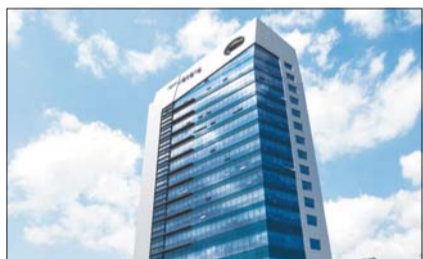
전남 목포시는 신안군과 광역시설 설치에 협의했으며,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찌꺼기(슬러지) 건조시설에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전남 순천시는 구례군과 광역화 협약을 체결했으며 음식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분뇨를 통합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판매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한다.

이번에 선정된 8개 사업이 오는 2030년까지 완공될 경우, 하루 1660톤에 달하는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돼, 하루 약 9만Nm3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약 3만 가구가 도시가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은 바이오가스의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8개를 포함하면 총 15개의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가 추진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늘려, 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상반기 신입 70명 채용 내달 1~15일까지 접수

신용보증기금은 혁신금융역량을 갖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2024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정보를 사전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신보는 입사지원자가 채용 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채용분야, 전형 절차 등의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사전공고문은 신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보는 오는 4월 1일 채용 공고를 하고 같은 달 15일까지 입사지원서를 접수해 총 70명의 신입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세부 채용분야는 ▲ 금융사무(일반) 인재 48명 ▲ 금융사무(지역전문) 인재 12명 ▲ ICT 인재 10명이다.

신보 관계자는 "입사 준비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사전공고를 진행하고, 본 채용 공고시에는 채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상세한 영상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역량과 열정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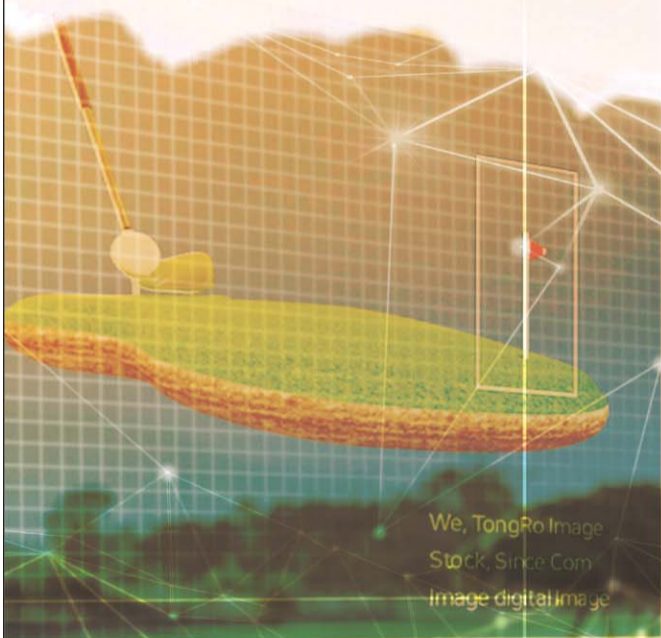
JUNO GOLF
PREMIUM GOLF STUDIO

경험해보세요 김준호 프로의 레슨 과학

Lorem 432.00
Lorem 122.00
Lorem 3.800



- 미국, 호주 등 골프 선진국의 레슨 노하우를 국내에서!
- 초고속 카메라 데이터분석의 프리미엄 레슨과학!



김프로
Par 4 432m

We, TongRo Image
Stock, Since Com
Image digital Image

김준호 프로 ■ 유튜브: 주노골프 ■ 인스타그램: juno_kim_44 ■ 주노프리미엄골프스튜디오 070-4243-9238

KPGA 프로 / 전) 국가대표 및 상비군 주장 /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졸업(골프전공) / 미국 Brian Mogg 골프스쿨 3년 수료 / 호주 Ryde Paramatta Club 대표선수(4Y) / 미국 호주에서 다년간 골프 레슨

무안국제공항, 동남아·中·제주 등 정기노선 8개 확대

진에어·제주항공 본격 운항 예정
항공사 추가 지원책 영향 미쳐
올해 여객 목표치 50만명 넘을 듯



진에어



제주항공

국토 서남권 관문인 무안국제공항이 동남아, 중국, 제주 등을 오가는 정기노선을 연내 8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 대표격인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무안국제공항을 출발지로 하는 국내·국제 정기노선을 4~5월부터 본격 운항할 예정이다.

무안공항에서 운항하는 노선은 ▲무안~제주(진에어, 편도 기준 주 2회) ▲무안~장가계(제주항공, 주 4회) ▲무안~연길(제주항공, 주 2회) 노선으로, 3개 항로에 주 8회다.

전남도는 여기에 올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무안~마닐라(로얄에어 필리핀) ▲무안~라오스(라오항공·국적기) ▲무안~몽골 울란바토르(진에어) ▲무안~몽골(훈누에어) ▲무안~다낭(제주항공) 등 5개 노선을 추가해 총 8개 정기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운항횟수는 주 2~4회 정도로 조울중이다.

도는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국내 국제공항 중 국제 정기선과 국내선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와 건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이번에 가시적인 결실을 맺게 됐다.

항공사 지원책으로 기존 손실 지원을 운항 장려금으로 제도를 개선하

고, 이용객 편의 증진과 공항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3개국 무사증 입국 제도 연장 등 추가 지원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규 정기선까지 더해지면 올해 무안공항 국제선 항공여객은 당초 목표치인 5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무안공항에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한 탑승객은 10만 명을 기록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무안공항에 정기노선 운항을 결정해 준 항공사에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국내·외 항공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국제 정기노선 확장과 공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의성군

농특산물 특별 기획전 진행

의성군은 4일부터 24일까지 ‘산수유마을 꽃밭이 행사’ 농특산물 특별 기획전을 농특산물 쇼핑몰 의성장날과 우체국 쇼핑몰 의성장날 브랜드관에서 진행한다.

‘의성장날’에서는 이벤트 기간 동안 산수유, 흑마늘 등 관련 제품들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무료배송과 함께 산수유 꽃밭이 행사 현장에서 QR코드를 통한 의성장날 회원가입 시 신규가입쿠폰(1만원) 지급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의성(경북)=장영우 기자

예천군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추진

예천군은 지난 1일부터 ‘2024년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2018.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올해 총 사업비 4억 6000만원, 3578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11월 3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는 1인 기준 연간 13만원이 지원되며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시 소멸된다.

/예천(경북)=장영우 기자

경북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한다

이달부터 교원안심공제 사업 시행
교육 침해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도 마련

경북교육청이 3월 부터 교원안심공제 계약에 따라 교원안심공제 사업을 시행한다.

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전체를 지원하며 교육활동 침해 교원은 소속 교육(지원)청과 경북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 가입 대상은 도내 모든 교원으로 교육청이 일괄 가입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맞춤형 컨설팅·분쟁 조정 지원 서비스(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지원), 교육활동 배상책임

지원(법률상 손해배상금 최대 2억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검정조사 때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 이내, 민형사 소송비 심급당 660만 원 이내), 교육활동 상해 치료비 지원(1사고 당 최대 200만 원), 교육활동 손해(물품) 비용 지원(1사고 당 최대 100만 원), 교원 긴급 경호 서비스(1사고 당 최대 20일)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 사업 외에도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2024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 계획’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원안심공제 사업으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나주시, 귀농·귀촌 삶의 질 향상 도모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 본격화

국가나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 지자체가 자체 공모를 통해 ‘살고싶은 농촌만들기’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착수해 주목받고 있다.

나주시는 농촌 거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윤병태 나주시장의 민선 8기 핵심 농촌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된다.

귀농·귀촌한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원주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마을 기초생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빈집정비, 경관 개선 등 마을 환경정비를 비롯해 주민 역량강화 사업도 함께 추진 한다. 정비된 빈집은 농촌 일손 돕기 참여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귀농·귀촌



전남 나주시가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있다. /나주시

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첫 사업 추진에 앞서 나주시는 지난해 9월 읍·면 마을을 대상으로 자율공모를 통해 마을 6곳을 선정했다.

나주시는 오는 2029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2024년 6곳, 2025년 6곳, 2026년 6곳, 2027년 6곳 등 총 24개 마을을 선정해 각각 3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창원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식

창원시, 성실납세자에 감사패 수여

(취한화, 하이트진로㈜ 등 선정)

경남 창원시는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시민의 귀감이 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3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이력이 없는 납세자 중 (취한화, 하이트진로㈜ 2개 기업과 기성하이스트 김부용 대표,

서울병원 윤지열 원장, the큰병원 김경범 원장 등 개인 3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패 전달 이외에도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 대상으로 선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홍남표 시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 커피업계 성장동력 확보 박차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

부산시는 오는 15일까지 ‘커피산업 기반조성 및 기업육성사업’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커피산업 기반조성 및 기업육성사업은 국내외 포럼 개최, 지역 내 커피 관련 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기술 개발, 사업화·마케팅 지원, 커피산업 실무 인력 양성 교육 등을 통해 커피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내 커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맞춤형 기술개발 ▲맞춤형 사업화·마케팅 3개 분야를 지원하며 총 16개사를 모집한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연구 개발(R

&D), 사업 확장,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딩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3개 사를 모집해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맞춤형 기술개발을 통해서도 시제품 개발, 원천 기술 확보, 공정 개선, 제품 고급화 등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3개 사를 모집해 기업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맞춤형 사업화·마케팅을 통해서도 시장 분석, 제품 홍보, 판로 개척,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10개 사를 모집해 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커피기업의 브랜드 가치 증진과 기술력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커피업계의 성장 동력이 확보되고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여주시

드론 실증도시 2년 연속 선정

여주시 섬 드론배송 하늘길 ‘활짝’ 열릴 전망이다.

여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 주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작년에 이어 본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국비 5억 원을 확보하고 오는 11월까지 총 6억 5천만 원을 투입, (주)스카이포츠드론서비스코리아, (주)무지개연구소, 국제드론표준산업협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섬 맞춤형 드론배송서비스 상용화에 나선다.

/여주(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전남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

전남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 행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데이터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데이터기반 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과 활용 ▲역량문화 조성 등 4개 영역 12개 지표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얻어 역대 최고점수를 받았다. /전남=양수영 기자

사전물량 확보하고 유통단계 줄이고... 밥상물가 진화 전략

대형마트 4사 '고물가 잡기'

'월급 빼고 다 올랐어요.' 고물가가 여러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식물가뿐 아니라 밥상물가가 지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이상기온, 유가 상승 등으로 농축수산물 대부분의 생산자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약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유통업체가 진화에 나섰다.



롯데마트·롯데슈퍼는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고랭지 절임배추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롯데마트



이마트는 후레쉬센터를 운영해 신선식품의 출하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등 물가안정에 힘쓰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4사가 물가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4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대형마트4사는 물가 안정을 위해 사전물량 확보, 대량매입, 유통단계 축소, 계열사 통합발주 등 다양한 전략을 내세웠다.

이마트는 자체 농산물 가공센터인 '후레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후레쉬센터는 4만6535㎡에 이르는 냉장·냉동 시설로, 이마트가 대량으로 직매입한 농수산물을 장·단기간 저장해두며 상품의 선도를 유지하는 곳이다. 이는 출하 시기와 물량까지 조절할 수 있어 큰 변동 없는 가격을 유지시킨다.

롯데쇼핑은 2022년부터 상품 기획에서부터 롯데마트와 슈퍼를 통합소싱하

이마트 '후레쉬센터' 운영
직매입 농수산물 저장, 신선도 유지
롯데쇼핑 마트·슈퍼 통합소싱
중복업무 비용 줄이고 비효율 개선
홈플러스 '못난이 농산물' 할인
사과 시작으로 4종으로 확대기로
하나로마트 안성센터에 물량확보
'살맛나게' 행사로 체감물가 낮춰

는 작업을 시작했다. 중복 업무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상품 코드를 통합해 발주, 상품 관리 등을 함께 하며 비효율을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절임배추의 경우 지난해 초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배추 농가와 대량 계약을 시행해 약 550톤의 절임배추를 공동으로 준비했다. 김장철에 판매량이 늘어나는 수육용 돼지고기도 통합소싱해 돼지 농가로부터 수육용 뒷다릿살을 100톤 이상 대량 매입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전년 대비 반값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해당 제품 매출이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홈플러스는 2022년부터 못생긴 농산물 살리기의 취지로 '못난이' 농산물 할인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함이다.

맛난이 농산물은 모양과 크기가 유통 규격에서 등급 외로 분류되지만 신선도와 맛 등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상품이다. 맛난이 농산물은 가격이 일반 상품보다 20~30% 저렴하다. 홈플러스는 이 맛난이 농산물을 사과에서 시작해 프리미엄 품목까지 4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수요가 특히 늘어나는 설, 추석 등 대목에 필요한 물량에 대한 과거 데이터와 최신 트렌드를 기반으로 파종 단계부터 사전 물량을 예측해 확보하고 있다.

하나로마트는 사전 물량확보로 안성센터를 활용해 출하조절 기능을 강화했다. 사과, 무, 양파 등 공급과 출하가 불안정한 상품들이 해당된다. 이는 농가와 소

비자, 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전략이다. 농협은 산지 물량 확보를 위해 사전 기획, 현장 상태점검, 가격동향 조사 등을 거쳐 최종 물량을 확보하고 시세 대비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업체에서는 '살맛나게' 특관 행사, 농협 자체 할인, 카드 할인 등을 1년 내내 지속해서 운영하며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마트 4사가 민심달래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각 사의 매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8.3% 하락했다. 부동의 1위 이마트도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올해 대형마트는 앞선 전략을 앞장세워 매출 반등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한 전략이지만 들여다 보면 유통 구조 개선이라는 큰 뜻이 내포돼 있다. 유통 과정을 전면 개선해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차별화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한화푸드테크, 김동선 주도 '스텔라피자' 인수

(부사장)

미국의 '로봇 피자 브랜드' 12인치 피자 1분에 한판 끝 완성

푸드테크 전문기업 한화푸드테크가 미국 로봇 피자 브랜드 스텔라피자(Stellar Pizza)를 인수한다. 한화푸드테크는 향후 다양한 식품 콘텐츠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적극 공략해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화로보틱스와도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앞서 1월 한화푸드테크와 스텔라피자를 운영하는 ㈜서브오토메이션은 자산 양도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난달 29일 모든 계약 절차를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한화푸드테크의 미국 법인인 ㈜한화푸드테크글로벌이 진행했다.

서브오토메이션은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세계적인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 출신 엔지니어들이 2019년 설립했다. 창업자는 스페이스X에서 로켓과 위성용 배터리 시스템을 연구 개발한 벤슨 차이다.

이번 계약 체결은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는 김동선 부사장이 직접 미국 현지를 여러 번 오가며 공을 들인 끝에 성사됐다.

한화푸드테크는 자산 100% 인수와 함께 CEO인 벤슨 차이를 포함한 경영진과 핵심 기술진 일부를 고용 승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스텔라피자는 물론 식품산업의 첨단화를 목표로 삼은 한화푸드테크의 기술 역량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텔라피자는 피자 로봇 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12인치 크기의 피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은 5분 남짓이다. 여러 건의 주문을 연달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가 시작되면 1분에 한 판 피자 가 완성된다.

48시간 저온 숙성한 피자 반죽을 로봇이 조리하는 방식으로 전 공정을 완전 자동화한 피자 브랜드는 스텔라피자가 유일하다.

스텔라피자는 시스템 재정비 등 경영 효율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스텔라피자를 창업한 벤슨 차이는 "한화와의 협력을 통해 스텔라피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면서 "식품산업에 대한 한화의 노하우와 푸드테크가 더해져 높은 품질의 피자를 부담 없는 가격에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롯데칠성, 밀키스 모델에 보이그룹 '투어스'

신규광고 제작·공개

롯데칠성음료가 대표 유성탄산음료 '밀키스'의 광고 모델로 가수 'TWS(투어스)'를 발탁하고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기분 좋은 만남에 밀키스'라는 콘셉트로 밀키스의 부드러움이 필요한 이유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광고를 제작했다. 광고는 부드러운 우유 풍미와 탄산의 청량함으로 사람 사이를 기분 좋게 이어주는 밀키스만의 특성을 묘사했다.

신규 광고는 TWS가 등장해 '우리 어떻게 친해졌더라?'라는 질문을 던지고

음악, 게임, 운동이 아닌 '우리 밀키스로 통했으니까'라는 문구와 함께 밀키스를 건넨다. 밀키스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부드럽게 형성되는 친밀감을 표현한 것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앞서 지난달 19일 밀키스 릴레이 댄스 영상을 공개했으며, 해당 영상은 공개 1주만에 유튜브 조회 수 약 120만회를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한편, 밀키스는 '밀키스 제로' 출시 및 수출 확대를 제2의 전성기를 맞으며 연 매출 1200억원이 넘는 메가 브랜드로 성장했다. /신원식 기자 tree6834@

세정, 김송우·이주형 대표이사 신규 선임

창립 50주년... 100년기업 새도약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패션기업 ㈜세정이 김송우·이주형 상무를 신입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세정은 10년 이상 근무하며 세정을 이끌어온 검증된 내부 인사인 전략기획실장 김송우 상무, 재무관리실장 이주형 상무를 2인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송우 선임 대표이사는 2012년 세정 전략기획실에 합류해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브랜드기획실 담당 임원과 ㈜세정I&C 대표이사까지 겸직 중이다.

글로벌 경영컨설팅 회사와 글로벌 기업 마케팅전략팀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쌓은 전략가로 세정에 합류한 이후, 지난 12년간 주요 브랜드의 경영·마케팅 전략 수립과 사업구조 개편 등에 힘써왔다.

이주형 선임 대표이사는 2001년 신입 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 자리까지 오른 최초의 인물이 됐다. 지난 2020년부터는 재무관리실장으로서 세정의 재무·회계를 총괄하는 중이다.

이 대표이사는 세정 회계팀 사원으로 시작해 회계팀장, 재무관리실장을 역임하며 23년 동안 재무 관리를 책임져 사내 최고의 '살림꾼'으로 통한다. 특히 부실하거나 성장가능성이 낮은 사업부 및 관계사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등 재무 구조를 건실하게 만들어 현재 세정의 부채비율을 50%로 유지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최빛나 기자

신세계免税 명동점에 '유이크' 단독입점

국내 첫 정식 매장 오픈

신세계면세점이 명동점에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브랜드 '유이크(UIQ)'를 단독 입점시켰다고 4일 밝혔다. 유이크가 국내에 정식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연 것은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이 처음이다.

글로벌 신약개발 전문기업 지놈앤컴퍼니가 지난 2021년 론칭한 유이크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미국, 일본, 중국 등 10개국에 진출해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 브랜드다. 온라인 입소문을 타면서 오프라인 고객 수요도 높아지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 입점했다.

양 사가 손잡은 배경엔 명동점만이 갖춘 특장점이 있다. 명동점은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K뷰티 성지'로 불릴 만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10층에 위치한 유이크 매장 전경. /신세계면세점

큼 다양한 K뷰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체험형 팝업 매장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아이코닉 존'은 명동점만의 차별화된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K뷰티 브랜드에게 명동점은 오프라인 채널 확보는 물론 상품과 브랜드 인지도까지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것. /최빛나 기자

홍삼농축액 담은 마카롱... 이색 컬래버로 '맛·건강' 시너지

식품료업계, 건식식품 등 합종연횡 이색 만남으로 소비자 흥미 유발 저당 제품 등 심리적 만족도 높아

식품료업계가 동종업계는 물론 건강 기능식품 브랜드, 프랜차이즈와 이색 컬래버를 실시하며 시너지를 노린다.

협업 신제품·신메뉴들은 이색 맛조 합으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함과 동시에 당과 칼로리를 낮춰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 중에 먹어도 부담없도록 심리적 만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그릭요거트 브랜드 그릭데이는 오리온의 장수 브랜드 다이제와 손잡고 그릭 오트다이제 샌드 레시피를 공개했다.

꾸덕한그릭요거트의 대중화를 이끈 그릭데이와 오리온의 스테디셀러 다이제의 만남으로 그릭요거트를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비스킷의 바삭함과 그릭요거트의 고소한 필링이 더해져 풍부한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릭데이 요거트는 그리스 정통 공법으로 유청을 제거해 밀도 높은 제형을 자랑한다. 저당, 고단백에 칼슘과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어 시니어와 자라나는 아이들의 영양간식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릭데이와 오트다이제의 협업 상품



/스위트바이오 라라스윗과 정관장 찐생이 선보인 '홍삼 아이스 마카롱' /라라스윗

오리온이 새롭게 출시한 오트 다이제는 백미 대비 칼슘 8배, 식이섬유 4배, 단백질 1.5배 등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오트를 22.5% 넣고 통밀을 더해 고소한 맛과 영양까지 강화했다. 오리온만의 그레놀라 제조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로스팅오트를 토핑해 카페나 베이커리에서 즐기는 수제 쿠키의 맛과 식감을 제대로 구현했다.

양사는 레시피 그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무료 샘플링과 리뷰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그릭데이와 오리온 양사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추첨을 통해 그릭데이 시그니처와 오리온 오트 다이제를 증정한다.

KCC인삼공사 정관장의 2030건강관리 브랜드 찐생은 저칼로리 아이스

크림 브랜드 라라스윗과 함께 이색 한정판 디저트 '홍삼 아이스 마카롱'을 출시해 주목받았다. '홍삼 아이스 마카롱'은 정관장 6년근 홍삼농축액이 들어가 건강하고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명절, 발렌타인데이 등 각종 행사 선물용으로 제작돼 고급스러운 패키지가 돋보인다.

정관장은 최근 양갱, 약과, 마카롱 등 홍삼을 활용한 디저트류를 잇따라 선보이며 올드한 브랜드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다. 저당 디저트 시장에서 활약 중인 라라스윗과의 컬래버 역시 과거와 현대의 이색적인 만남을 통해 2030타겟에게 어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헬스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식품기업의 대표 제품을

활용한 고단백 저칼로리 메뉴를 선보였다.

프리미엄 분식 브랜드 스크푸드는 건강을 챙기는 소비자들을 위해 CJ제일제당의 대표 제품인 스팸을 활용한 메뉴 '헬트 닭가슴살 스팸 덮밥'을 선보였다.

메인 재료인 닭가슴살 스팸은 기존의 돼지고기 스팸과는 다르게 칼로리와 지방, 나트륨 함량이 낮아 보다 건강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과 체력 증진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식품·프랜차이즈 업계가 건강한 컬래버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며 "이미 익숙한 서로 다른 맛을 결합한 이색 조합이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문 위시(MoonWish)' 전시전. /현대백화점

현대백, '문 위시'展 개최

현대백화점은 오는 10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무역센터점 10층 문화홀에서 '마음에 달을 품다, 문 위시(Moon Wish) 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음에 달을 품다, 문 위시(Moon Wish) 전'은 18세기 조선시대 달항아리 백자호부터 '달'을 모티브로 한 회화 등 50여 점의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한다.

이번 전시는 둥근 달에 소원을 빌어 한 해의 행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고객들에게 예술적 영감과 작품들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신제품 소식

애경산업

'링클케어 드라이 시트' 출시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다리미 없이 옷 주름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인다.

애경산업은 '르샤트라'에서 건조기용 '링클케어 드라이 시트'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링클케어 성분'을 함유해 건조기 사용 후 생길 수 있는 옷의 주름을 감소시킨다. 섬유에 친화도가 높은 '링클케어 성분'이 섬유 표면에 친수성을 더해주는 원리라는 것이 애경산업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애경산업은 공인기관시험을 통해 해당 제품이 옷 주름을 60% 개선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이청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올인원 부스터

아모레퍼시픽의이너뷰티 브랜드 바이탈뷰티가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선보이며 콜라겐 시장을 이끌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바이트뷰티에서 신제품 '슈퍼콜라겐 올인원 부스터(사진)'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슈퍼콜라겐 올인원 부스터'는 액상 형태의 '부스터 앰플'과 '부스터 정제2정'을 하나로 합친 이중 제형 제품이다. 콜라겐을 비롯해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글루타치온 등 총 10가지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콜라겐 단일 성분뿐만 아니라 부스팅 성분까지 모두 담았다는 것이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KD 경동제약

경동제약, 신규 CI 공개

경동제약이 20여 년간 사용한 기업 이미지(CI)를 새롭게 선보인다.

경동제약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는 기업 이념을 담은 신규 CI를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변경된 CI는 건강과 희망을 상징하는 은행나무 잎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은행나무 잎 모양에 모서리가 둥근 상자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해 안정감이 느껴지도록 표현했다는 것이 경동제약의 설명이다.

경동제약은 새로운 CI를 공식 홈페이지, TV 광고, 인쇄·판촉물 등에 적용하고 이밖에 CI가 활용되는 모든 곳에 차례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아워홈

'온더고' 서포터즈 모집

글로벌 푸드케어&케이터링 아워홈은 이색 미식 도시락 브랜드 '온더고(ONTHEGO)' 인스타그램 서포터즈 '온더고 1기'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아워홈은 뛰어난맛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온더고 브랜드와 제품 인지도 및 가치 제고를 위해 이번 서포터즈를 기획했다.

제품 홍보, 기획 등 활동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함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는 'VCC(가치 공동창출)' 마케팅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온더고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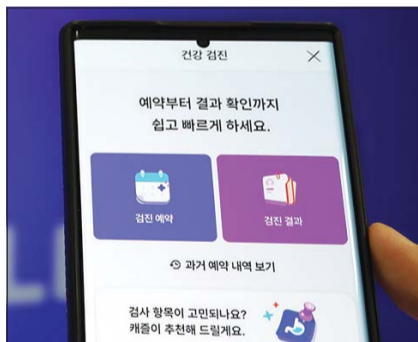
롯데헬스케어, 기업건강검진 서비스 확대

헬스케어 플랫폼 '캐즐' B2B 운영 그룹내 5개 계열사 서비스 계약

롯데헬스케어가 헬스케어 플랫폼 '캐즐'을 기업 간 거래(B2B)에서 선보이며 가입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헬스케어는 건강검진 대행 전문 기업인 에임메드와 협업해 캐즐에서 기업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롯데헬스케어와 에임메드는 공개 입찰을 통해 롯데백화점, 롯데칠성음료, 롯데마트, 롯데건설, 롯데정보통신 등 롯데그룹 내 5개 계열사와 임직원 건강검진 운영 계약을 맺었다. 오는 4월 말까지 롯데그룹 내 21개 계열사에 건강



롯데헬스케어가 '캐즐'에서 제공하는 '기업건강검진 서비스' 화면. /롯데헬스케어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임직원은 캐즐에서 '기업회원'으로 인증하면 최대 전국 363개의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예약할 수 있다. 캐즐은 성별과 연

령,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검사를 추천하기도 한다.

건강검진 후에도 캐즐을 통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캐즐은 사용자의 건강검진결과를 7년 동안 보관해 매년 다른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경우에도 종합 이력 확인이 가능하다. 캐즐은 검진 항목별 상세 결과, 종합 소견, 연도별 비교 등의 기능을 갖췄다.

이밖에 기업회원을 위한 특가 쇼핑몰, 유전자검사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선보인다. 롯데헬스케어는 롯데그룹 계열사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롯데바이오로직스 "올해 4회에 걸쳐 신입·경력사원 채용"

바이오 전문인력 확보 계획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전문인력 확보와 청년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올해 '경력 및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분기별 1회, 연간 4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경력사원 채용 일정은 1·4·7·10월, 신입사원 채용은 3·6·9·12월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24년 세 자릿수 규모의 경력 및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채용 단계별 소요시간을 줄이고 취

업 준비생에게 다 차례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이다. 또 채용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잠재 지원자들에게 충분한 준비시간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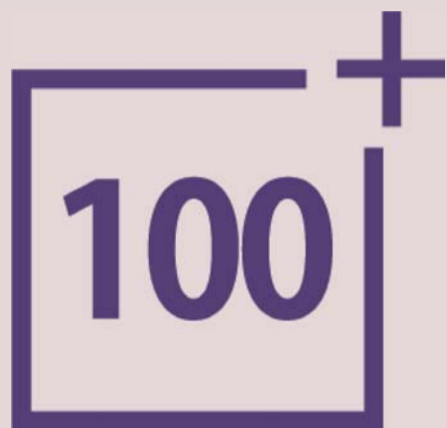
무엇보다 신입사원 채용은 올해부터 통합 직군이 아닌 직무별 모집을 통해 각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전문인재를 육성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3월 채용은 엔지니어, IT, 인사지원 등 총 7개 직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자 서류 접수는 오는 5일부터

17일까지 롯데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이후 서류전형, 온라인 인적성전형, 면접전형, 채용검진 등을 거친 최종 합격자는 오는 5월 중 입사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산업의 인력난 해결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023년 8월부터 성별, 국적, 나이, 학력, 경력 제한 없이 어느 직무든 누구나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인턴십'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청하 기자



2024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1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2024.03.20(수)

14:00~17:10

서울 명동은행회관2층국제회의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칼리지 수료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김동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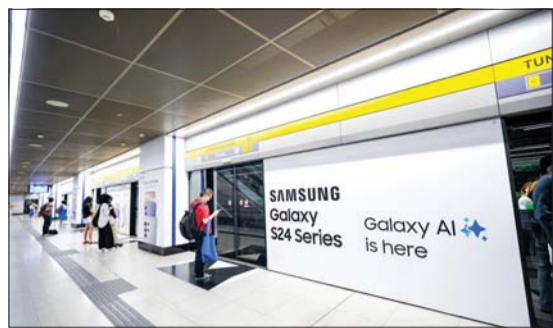
미래에셋투자자외연금센터 본부장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 행사개요

- 행사명: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 일 시: 2024년 3월 20일(수) 오후 14:00 ~ 17:1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등 록: <https://www.metroseoul.co.kr>(메트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 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13:30~14:00 VIP Tea 타임)
축사	14:00~14: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개회사	14:00~14:20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1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전망
강연1	15:10~15:50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강연2	15:50~16:3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부동산전망과 투자전략
강연3	16:30~17:10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자외연금센터 본부장 : 고령화시대, 재테크 전략
폐회	17:10	



삼성전자, 말레이시아 'TRX 삼성 갤럭시' 운영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지하철역 'TRX'를 'TRX 삼성 갤럭시'로 새로 이름 지었다고 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말레이시아 도시철도와 협업체 개명을 결정했다. 앞으로 1년간 이름을 사용할 예정. 쿠알라룸푸르 시내 지하철 노선도에도 반영했다. /삼성전자



애경케미칼, '납세자의 날' 경제부총리표창 수훈
 애경케미칼이 '제58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경제부총리표창을 수훈했다. 애경케미칼은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제부총리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왼쪽 다섯 번째) 현창수 애경케미칼 울산공장 업무지원팀 팀장 등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애경케미칼



웰컴금융그룹,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사업 지원
 웰컴금융그룹이 24시간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한다. 웰컴금융그룹은 경기도 이천시와 함께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고광태 웰컴복지재단 이사장(오른쪽)과, 김경희 이천시장이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웰컴금융그룹



신한라이프, 취약계층 아동에 건강식단 키트 전달
 신한라이프의 사회공헌재단인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은 겨울방학 기간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수도권 지역 취약계층 아동 1000명에게 3억원 규모의 건강식단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김순기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 사무국장(왼쪽 세번째)과 신한라이프 임직원들이 결식 우려 아동에게 전달할 건강식단 키트와 함께 서 있다. /신한라이프

이노비즈협회 '차세대 경영자 아카데미' 운영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가 기업 승계를 준비하는 2세 지원에 나섰다. 이노비즈협회는 기업의 미래준비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기 이노비즈 차세대 경영자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이노비즈기업은 평균 업력 19년으로, 체계적인 경영 승계 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노비즈 차세대 경영자 아카데미는 최신 경영학·뇌과학·심리학·교육학의 연구결과와 적용사례를 배운다. /김승호 기자 bada@

조원태 “아시아나 인수 막바지… 통합 항공사 함께”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 창립 55주년

창립 기념사 통해 미래비전 공유 “외연 확장에 걸맞는 내실 다져야”

“55년 역사를 바탕으로 도약할 미래 함께 만들어 가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4일 대한항공 창립 55주년을 맞아 사내 인터넷 라디오에 등재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 창립 55주년을 축하하면서 대한항공이 걸어온 성장 과정을 돌아봤다.

조 회장은 창립 기념사를 통해 “대한항공이 걸어온 55년 역사 속 가슴 벅찬 감동의 순간들은 모두 대한항공이 꿈을 실현으로 옮기고 책임을 기꺼이 감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임직원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앞으로 끝없이 도약할 대한항공의 미래, 다가올 또 다른 감동의 순간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은 수송보국의 창립 이념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고 필요한 곳으로 물류를 보내왔다”며 “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을 꾸준히 걸어왔다”고 평가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이 4일 오전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창립 55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또한 “선배 임직원들의 자긍심과 원대한 꿈이 동력이 되었고 고객의 사랑과 국민의 신뢰가 든든한 두 날개 가 돼 주었다”면서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이 대한항공이 나아갈 길을 더욱 넓히고 있다”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조 회장은 올해 이슈로는 ‘불확실성 증대’와 ‘새로운 경영 과제’를 꼽았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인 인수와 통합 항공사 출범을 위한 협력을 언급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오랜 시간 많은 고

민을 담았던 과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 모두 역사적인 다음 페이지의 서사를 써 내려가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의의 순간부터 매서운 겨울이 닥쳤지만 튼튼한 나무는 겨울이 길수록 안으로 더 촘촘한 나이테와 단단한 무늬를 만든다”며 “통합 항공사를 우리의 역량으로 정성껏 가꾸면 곧 글로벌 항공업계의 아름드리 나무로 자랄 것이고, 대한민국 항공업계 전반에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이 외연을 확장하는 만큼 기본에 충실하고 내

실을 다지는 데 힘쓸 것 또한 주문했다. 그는 “앞으로 대한항공이 되고자 하는 모습은 누구나 꼭 타고 싶은 항공사, 100% 안전함을 믿을 수 있는 항공사, 집에 온 듯 편안하고 따뜻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항공사”라며 “운항, 정비, 서비스 등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익숙함 속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대한항공의 본원적 경쟁력인 절대적인 안전 운항과 고객 중심 서비스를 더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T,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선정

통신업계 유일 우수기업 선정 교육투자·소통활동 등 고평가

SK텔레콤이 안전보건 분야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으로 선정됐다.

SKT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올해 신설된 ‘제1회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는 SKT를 포함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등 56개 기업이 꼽혔으며 통신업계에서는 SKT가 유일하다.

이번 SKT의 우수기업 선정은 자



지난달 2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정창권 SKT 안전보건 담당(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협력사 예림피앤에프 이재복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T

사 구성원은 물론 협력사 구성원 대상 안전보건 교육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다양한 소통 활동으로 협력사의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해 온

것이 높게 평가 받았다.

SKT는 협력사의 안전보건 분야 상생 협력을 위해 현장 위험요소 및 개선 사항을 제보하는 안전신문고 제도와 위험요인과 유의 사항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협력사 가족 및 구성원 안전영상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소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과 드론을 활용해 기지국 철탑을 관리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솔루션, 최첨단 가상현실(VR) 기반 안전체험교육관, 안전관리시스템을 협력사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스타벅스코리아 고은하 커피대사 선발

스타벅스 코리아 25주년을 대표할 최고의 커피 전문가가 탄생했다. 스타벅스는 올해 동안 스타벅스를 대표할 커피전문가에 스타벅스 해운대점 점장으로 근무 중인 고은하 바리스타를(사진) 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고은하 커피대사는 2015년 입사 후 해운대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커피 취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스타벅스를 통해 나만의 커피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힘썼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현대차정몽구재단, 대학생 기자단 모집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3월 4일부터 25일까지 대학생 기자단 ‘CMK ONers(이하 오너스 기자단)’ 2기를 모집한다.

오너스 기자단은 사람과 신뢰를 중시하며, 미래인재 발굴과 육성에 힘써온 설립자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다양한 사업을 일반인의 시선으로 전달하고자 지난해 출범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대학생 기자단이 언론인과 홍보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오너스 기자단 1기는 한 명

의 낙오자 없이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2기 기자단은 1기 기자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층 업그레이드 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서울 중심의 오프라인 활동 참여가 가능한 대학교 재·휴학생이다. 글쓰기와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고, 개인 SNS 활동에 적극적이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노력과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ysw@



인사

- ◆한국금융경제신문 △ 편집국장 장웅준
- ◆한국예탁결제원 ◇부장 보임 △혁신금융실 실장 이경미
- ◆서울관광재단 △ 국제관광·MICE본부장 김만기
- ◆보건복지부 ◇국장급 채용 △ 장관정책보좌관 최진환
- ◆아주뉴스코퍼레이션 △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장 임규진 △ 아주경제 사장 오종석
- ◆직설 △ 대표이사 겸 발행인 박성권 △ 편집인 겸 편집국장 김봉연
- ◆매일일보 △ 광고마케팅국장 김준영
- ◆코스콤 (본부장 신규 임명) △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신경호 △ 자본시장본부 본부장 현정훈 △ 금융사업본부 본부장 정기우
- ◆한독 ◇ 부사장 △ 생산본부 유준연 ◇ 전무 △ 기획조정실 김동환 ◇ 상무 △ 인사실 오필종
- ◆BNK투자증권 ◇ 신규 선임 △ 전무 이상선(D-IT본부) △ 상무 강석범(구조화금융본부)
- ◆블록미디어 △ 보도제작본부장 오진석 △ 총괄전략본부장 최동혁 △ 최고기술책임자(CTO) 지 알렉산더
- ◆오피니언뉴스 △ 편집국장 이병관

부음

- ▲ 김재홍(전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전 KT&G복지재단 이사장)씨 별세, 유자씨 남편상, 김소희·김준우씨 부친상, 박형태씨 장인상, 김영임씨 시부상 = 4일 오전 4시,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6일. 02-958-9545
- ▲ 정군자씨 별세, 이광일씨 부인상, 이철규(한스경제 편집국장)·이상규·이봉규씨 모친상 = 4일 오전 9시, 서울원 일산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6일. 031-923-7000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공급망 재편 가속화, 조여오는 위기



한용수의
돌직구

미-중 공급망 전쟁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무역에서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관세총국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12월 한 달 기준 대미 수출은 112억9000만달러, 대중 수출은 108억7000만달러로 역전됐다.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어선 건 20년 6개월 만이다. 일본 역시 4년 만에 미국 수출이 최대치를 기록하며 대중 수출을 넘어섰다. 미국의 경우 수입 상대국 1위는 17년 만에 중국이 밀려나고 멕시코가 차지했다. 가전제품 등의 조달처는 중국에서 인도·베트남으로 이동 중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대중국 공급망 견제를 취하며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하는 추세다.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는 미국은 지난달 반도체법 발효 후 자국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GF)에 15억달러 규모 보조금과 이를 넘어서는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통해 1만

500여 개의 건설·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125억달러의 잠재적 민간 투자 효과가 나올 것이라 전망이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승인이 가속화되며, 인텔 등에 대한 보조금 승인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EU는 역외보조금 규정(FSR) 시행 후 처음으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불가리아 열차 공공조달 사업 입찰에 참여한 중국 기업 중처쓰팡이 EU 역내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 역외보조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번 직권조사는 EU 역외보조금 규정 발효 후 이행 과정에서 심층 조사로 이어진 첫 사례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 기업인 중처쓰팡의 계약 낙찰 금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이 글로벌 무역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은 여전히 막강하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미국 견제를 피하기 위해 아세안·멕시코 등 다수 자원국과 신흥국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은 11억달러를 기록해 2021년 이후 지속 성장 중이다. 중국 상하이 소재 테슬라 부품 공급망이 미국 텍사스주에 이전한 멕시코 몬테레이 지역으로 대거 이전하며, 미

국의 규제를 회피하고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 멕시코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에선 대 중국 제재로 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반도체 공정 중 실리콘 세척·절단 등에 사용되는 일본 반도체 장비 수입이 특히 증가했고, 대 중국 수출이 도쿄 일렉트론 등 올해 일본 주요 기업 매출의 최대 50%를 차지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EU 등 경쟁국들이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거나 적극 대응하며 자국 이익을 도모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주요국들은 이미 자국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한국은 오는 6월 시행되는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안보폭목 관련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을 시작한 수준이다.

공급망 다변화, 기술혁신을 통한 자국내 생산 등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제조 등 우리만의 강점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중국, 대 미국 대응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종=hys@metroseoul.co.kr

누구를 위한 공천인가



기지수첩
박정익
(정치경제부)

여야의 공천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 서면서 본격적인 제22대 총선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다.

공천작업은 쉽지 않다. 아무리 공정하게 공천을 하더라도 당내 잡음이나 불만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각 정당들은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데 힘을 쏟는다.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공천에서 강조한 것은 '시스템 공천'이다. 그러나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온데간데없어 보인다.

청년 후보자에 대한 경선 보장이라든가, 경선에 대한 방식, 전략지역 지정, 지

역구 변경 등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공천이다.

그나마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잡음 없이 공천작업이 이뤄지는 모양새인 반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과정 중 벌써 10여명의 의원들이 탈당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공천 갈등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리얼미터의 2월 4주차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39.5%)이 국민의힘(43.5%)에 역전당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은 40%대의 정당 지지율을 유지했고, 탄핵의 반사이익으로 문재인 정권 탄생에 이어 지난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어 국회 내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 안팎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천 파동으로

축발된 당내 갈등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의 현 상황은 2012년 19대 총선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하다. 당시 이명박 정권 말기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낙관했고, 정권 심판론에만 안주한 나머지 계파 싸움과 공천 갈등이 극에 달했다.

반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띄워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하며 김종인 현 개혁신당 공천 관리위원장을 영입해 경제 민주화를 내세운 결과 152석이라는 과반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민심은 바람과도 같다. 수권정당의 능력을 보이는 정당이, 진정성 있게 민생을 위한 정당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를 위한 공천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천이 마무리 되길 바란다.

/pathfinder@

오늘의 운세 3월 5일 (음 1월 2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보기 싫던 사람도 항상 보게 되니, 48년생 오후부터 상승 운이니 여행 일정 결정은 오후로 미뤄라. 60년생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다. 72년생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에 대해 머무르지 말 것. 84년생 부정한 타협에 말리지 마라.



37년생 먼 곳에서 손님이 즐거운 소식을 들고 온다. 49년생 떠나기도 머물기도 어려운 하루가 되겠다. 61년생 조연도 사람을 봐 가며 따라야 하는 법. 73년생 작은 일로 언쟁이 생겨 크게 될 수 있다. 85년생 호랑이띠와 거래는 미뤄진다.



38년생 몸이 마음을 따라 주지 못하는 하루. 50년생 지고도 이기는 것이 있으니 때로는 저 누는 것도 좋다. 62년생 조금이나마 화를 부른다. 74년생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 좋은 소식이 온다. 86년생 어제의 결실이 오늘 현찰로 들어온다.



39년생 횡재수가 있으니 집 안 청소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51년생 서명을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63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헛짓. 75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 부터이니 시작을. 87년생 결혼식을 유령에 따를 필요까지 있을까.



40년생 남모르게 베푼 선물이 나에게 돌아온다. 52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이치. 64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여겨라. 76년생 욕심이 과하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 88년생 공연한 것에 화내지 않도록.



41년생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희망을 품게 된다. 53년생 작은 먼지가 눈물을 내게 하니 주위를 살피라. 65년생 지나친 운동이 몸을 더 해친다. 77년생 만인이 부러워하나 내게는 별로 쓸모가 없다. 89년생 중점이 사발점이 될 수도 있음.



42년생 은행 시에 보복 운전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54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굴러들어오는 날. 66년생 시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를 보내라. 78년생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하다 보면 결과가 좋다. 90년생 영입목표를 이룬다.



43년생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행한다. 55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작은 지출을 하는 것도 꼼꼼히. 67년생 수고로움이 오늘의 결과를 좋게 한다. 79년생 무대위가 가면 그늘을 찾지 않으니 마음을 비워라. 91년생 잃어버린 물건을 오후에 찾는다.



44년생 장거리 여행을 나설 일이 생긴다. 56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68년생 흐르는 대로 내버려두면 절로 굴러간다. 80년생 꽃피고 새가 우니 움직일 때이다. 92년생 건디기 어려운 시련도 결국은 지나간다.



45년생 투자를 위해 돈 빌리지 않도록. 57년생 외출을 삼가고 건강에 유의. 69년생 불만이 있어도 누구를 탓하겠나. 81년생 미뤄진 일에서 기적처럼 이득이 발생함. 93년생 인내하는 행동이 나를 높여주니 투덜대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해라.



46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친구와의 대화에 주의해야 한다. 58년생 과한 운동을 피하고 심신의 안정을 취해야 하는 날. 70년생 빌려준 돈이나 선물이 들어오니 기쁘다. 82년생 희비도 종이 한 장 차이. 94년생 꿈이 큰 만큼 실력을 키워나가야.



47년생 개미구멍 하나로 복이 무너질 수 있다. 59년생 운세가 트이니 능력보다 많은 일을 해내는 날. 71년생 직장에서 의견 손해가 있을 수 있다. 83년생 승전에 고생한 보람을 느끼고 흐뭇한 하루이다. 95년생 비난은 서로를 지치게 할 뿐이다.



김상회의四季 공짜 점심은 없다

주식을 매수하고 며칠 동안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가가 확 오른다. 이유 없이 주가가 조금씩 오르는 일은 그리 이상할 게 없다. 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계속해서 크게 오르면 조심해야 한다. 이른바 작전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초보 투자자들이 위험한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 작전주를 매수하는 것이다. 작전주는 어떤 세력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식을 말한다. 작전주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주가가 오르기도 한다. 위험도 크다.

그렇지만 투자자는 불법도 위험도 개의치 않는다. 작전주를 매수해서 수익이 생길지 아닐지는 분명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세상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들은 작전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잘 생각해야 한다. 계속 주가가 오르면 잠시 매수했다가 빠지면 된다고 생각한다. 위험한 생각이다. 작전 세력들은 주가가 낮을 때 대량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가짜 정보나 호재를 만들어 시장에 흘린다. 더불어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빠르게 끌어 올린다. 초보 투자자가 작전주 정보를 듣게 되는 게 이런 때쯤이다. 초보들은 얻어들은 정보에 흥분하고 돈을 투자하지만 이런 때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내 귀에까지 정보가 들어왔다는 건 이미 작전이 끝날 때라는 의미와 같다. 그런데도 혹해서 투자에 나선다면 결과는 엄청난 재산 손실이다. 작전이 끝난 주식은 갑자기 급락하는 게 일반적이다. 팔아버리려고 해도 팔 수가 없다. 아무도 매수하지 않는데 어떻게 팔겠는가. 내 재산이 눈앞에서 허공으로 날아가는 걸 고통 속에 지켜봐야 한다. 인생살이 투자에서 쉽게 얻어지는 건 없다. 필자는 한때 금융인이었다. 그때 이런 말이 있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8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8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특별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2		6		4	7
	8	5		2	9
1					
	4		7		6 3
7 6		9			8
					9
	2	9	6		3
9	8		4		5

		1		4		7	
	4						3
6		5		9			4
		9 4		7 2			
5							9
		6 9		5 8			
1			3	2			6
	6						1
	2		7		5		

9	1	9	7	2	8	8	2	6
8	8	2	9	1	6	9	2	7
6	7	2	2	9	8	9	1	8
2	8	9	8	6	7	1	9	2
7	2	6	8	9	1	2	8	9
8	9	1	9	2	2	6	7	8
9	2	8	6	8	2	7	9	1
1	6	8	2	7	9	2	8	9
2	9	7	1	8	9	8	6	2

8	8	9	9	2	1	2	6	7
2	1	6	7	9	8	8	9	2
9	2	7	2	6	8	8	9	1
6	7	8	9	8	6	9	1	2
2	9	8	1	2	7	2	9	
1	9	2	2	9	7	6	8	8
7	2	1	6	8	9	2	8	9
8	8	9	1	2	2	9	7	6
9	6	2	8	7	9	1	2	8

서울시, 골목길 핫플레이스 발굴... 지역주민 피해도 개선

‘관광 스포츠도시’ 정책 비전 실현 골목길 스토리텔링... 명소 재탄생 주민피해 자치구 공모로 1개소 지원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본격화 등 국제스포츠 도시 위상 제고 나서



오버투어리즘으로 고통받는 북촌 한옥마을 일대.

서울시가 합지로(‘합’과 ‘을지로’를 합쳐 만든 신조어로 중구 을지로3가 일대를 일컫는 말)와 용리단길(‘용산’과 ‘경리단길’의 합성어로 용산구 한강로2가를 이르는 말)의 아성을 뛰어넘을 골목길 명소를 발굴해 홍보하고,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피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 구축에 착수한다.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도 본격화해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는 ‘매력 있고 활력 넘치는 관광 스포츠 도시,

서울’이라는 정책 비전 실현에 나선다. 우선 시는 올 상반기 서울의 특색 있는 골목길 핫플레이스를 발굴해 관광 자원으로 만들 예정이다. 지역 주민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골목길에 스토리텔링을 부여, 누구나 찾고 싶은 명소로 재탄생시킨다는 목표다.

시는 테마별 코스를 구성하고 골목 인근 공방과 음식점, 여행사 등 민간과 협력해 일상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골목길 30선’을 선정하고 홍보 콘텐츠를 확산해 각 골목에 매력적인 이미지를 입힌다는 구상이다. 주거 지역이 관광지가 돼 오버투어리즘으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덜어줄 방침이다. ‘주거 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자치구 공모를 열고 1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관광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꾸려 자치구 사업 계획서를 검토,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피해를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 1개소를 선정해 약 2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시는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 선정 추진과 2024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개최를 통해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 나선다. 오는 4~7월 대한체육회의 국내 유치도시 공모에 지원해 선정되면 올 8~9월 서울시의회와 유치 동의안 의결을 거쳐 내년 7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달부터 서울의 정체성과 문화적 감성 등을 담은 올림픽 유치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림픽 개최비용

최소화 방안도 마련한다. 2026년까지 잠실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고 2029년까지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을 완료한다.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세미나, 여론조사, 범시민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시민과 함께하는 올림픽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올 5월에는 시 전역에서 ‘서울페스타 2024’를 열고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방문을 유도한다.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5월 4~5일 노을공원에서는 한국 고유 구이문화를 경험하는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스타 셰프가 구워주는 구이를 먹을 수 있는 ‘바비큐 맛’ 체험존이 운영된다. 같은달 4일 엔 광화문광장에 뷰티·패션·미식·게임 등 서울 스타일을 상품화해 선보이는 쇼케이스를 조성, 전시와 공연이 결합된 로드쇼를 펼친다. /글·사진=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교육경비보조금 3368억 확보

올 자치구 총예산 22.3조 중 1.5% 전년비 1.6억 감소... 1인당 42만원 서울시교육청이 2024년도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각급 학교에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3368억원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자치구별 예산은 해당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조례의 범위 따라

상이다. 올해 자치구 총예산 22조3578억원 중 교육경비보조금은 3368억원으로 자치구 총예산 대비 1.5%를 차지한다. 작년과 비교해 1억6670만원 감소했다. 자치구 1교당 평균 지원금액은 2억4495만원이며, 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42만4000원이다. 이 중 무상급식비, 교육급여 등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간 예산을 분담하는 사업을 제외한 자치구별 특색을 반영해 편성한 교육경비보조금 총예산은 1528억원이다. 보조 여부는 각급학교 신

청에 따라 자치구별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분담 사업을 제외한 교육경비보조금의 자치구 1교당 평균 지원금액은 1억1115만원이며, 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19만2000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역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와 교육청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hjj@

인천시, 1조3350억 中 小 育 성 자 금 지 원

1분기 지원, 3790억 규모... 접수시작 지난해 조기 소진으로 올 분기별 공고 인천광역시시는 올해 중소기업을 위해 650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1조 33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중 1분기 지원은 3790억 원 규모로 4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지역기업 보호를 위해 올해는 지난해 1조 2250억 원보다 1100억 원이 확대된 1조 335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이자차액보전 1조 400억 원, 매출채권보험 2,300억 원, 협약보증지원 300억 원, 구조고도화자금 350억 원 등이다. 올해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달리 기업들이 적기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고 시기를 연초 1회에서 분기별 공고로 조정했다. 지난해 한꺼번에 신청기업이 몰리면서 5월 초 재원이 조

기에 소진돼 신청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많아 중소기업이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분기별 나눠 공고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과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수혜기업도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확대했다.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을 폐지하고 1년 및 3년은 유지하되, 지난해 N H농협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저리 중소기업 자금 대출을 시행하는 한편, 협업은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인천시 중소기업맞춤형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다수의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비교한 후 저렴한 은행에서 자금실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으로 폐원위기 지원

서울시, 92개 어린이집 선정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도보 이용권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를 함께 돌보는 서울시의 새로운 보육 모델이다. 시는 2024년 신규 모집을 통해 20개 공동체, 92개 어린이집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으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에는 정원 충족률 50%를 채우지 못해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 6개소(4개 공동체)를 처음으로 모아어린이집으로 선발했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

각해지는 가운데 영유아수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집이 공동체 내 다른 어린이집과의 상생·협력으로 원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장애어린이집, 다문화어린이집이 참여한 공동체 등을 모아어린이집으로 선정해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선정된 공동체에 공동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과 생태 친화 환경 조성 목적의 환경 개선비 5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운영비 절감, 입소 공유, 보육 프로그램 공동 시행과 같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만의 강점이 입소문을 타며 보육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모습. /서울시

현장에서의 관심과 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모아어린이집이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보육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8 | 해질 18:30

3월 5일 (화) 음력 : 1월 25일

수도권 날씨 4 ~ 1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백령도 3/8, 파주 1/11, 서울 4/12, 인천 5/11, 수원 5/12, 평택 4/11, 양평 2/11, 용인 5/12, 연천 -1/12, 동두천 0/13, 가평 -1/1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전쟁으로 연기된 이스라엘 지방선거에서 극우 진영 승리 /사진 뉴시스 ▲74조원 벌는 것도 억울한데...머스크, 수수료 8조원 내줄 판

▲국제천문연맹, 천왕성과 해왕성 주변 위성 3개 발견 ▲2월 日 자금공급량 5861조원·2.4% ↑...“잔액 작년 3월來 최저”



▲‘대중 억제강화’美 AI무인전투기 개발 박차...“업체 선정 착수” ▲중국 달러기준 작년 1인당 GNI 29년 만 첫 ‘전년비 감소’ /사진 뉴시스



대형마트 4사
밥상물가
진화 전략
니



Life

식음료업계
이색 컬래버로
'맛·건강' 시너지
L2



행복·희망 '뚝딱'... 자립준비청년·소외이웃 돕는 '깨비증권'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KB증권

사회와의 공동 성장을 추구하는 금융 기업 KB증권이 적극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동을 보여 주고 있다.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부터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 기업 간 ESG 생태계 구축까지 지속가능한 사회 활동에 힘 쓰는 모습이다.

◆정 나와라 뚝딱! 기념일마다 훈훈한 '깨비박스'

KB증권은 명절, 기념일마다 소외된 이웃들을 대상으로 시기별로 어울리는 '정 든든 KB박스'를 전달하고 있다. 해당 활동은 지역사회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매년 설과 추석마다 다양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전달하는 KB증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이다. KB증권은 2017년 추석을 시작으로 8년째 '정 든든 KB박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설 연휴였던 지난달에는 서울시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설 맞이 식재료와 겨울용 온열제품을 담은 '정(情) 든든 KB박스'를 준비했다. KB증권은 이번 설을 포함해 총 4360가정을 지원해 왔다.

김성현 KB증권 사장은 "한해를 시작하는 명절인 설을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KB증권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흥구 KB증권 사장은 "취약계층의 소외된 어르신들이 KB증권의 작은 선물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절마다 소외이웃에 'KB박스' 전달 먹거리, 생필품 등 따뜻한 온기 나눠 교육환경 개선, 농어촌 의료봉사도

또한, KB증권은 다양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추석에는 다문화 한부모 가정 300가구에 명절선물세트와 간편식을 담은 '정 든든 KB박스'를, 어버이날에는 저소득 어르신 가구 600가구에 영양제와 삼계탕 등을 담은 '孝드림 KB박스'를 준비했다. 어버이날마다 준비하는 '孝드림 KB박스' 역시 KB증권이 지난해까지 9년째 준비해 온 사회공헌 활동이다. 작년에는 서울 6개 지역구(강서·양천·노원·동작·강남·서대문구)의 저소득 어르신 가정 600가구에 전달했다.

이외에도 KB증권은 ESG중심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고자 아동들의 교육환경을



- ① 지난달 1일 KB증권 본사에서 김성현 KB증권 사장(왼쪽 두번째)과 이흥구 사장(왼쪽 세번째)이 '설 맞이 정 든든 KB박스' 전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② 지난해 12월 1일 KB증권 연수원에서 임직원들이 '깨비증권 행복뚝딱 크리스마스 캠프'를 진행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③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시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KB증권의 '비콥 웨이브(B Corp Wave)' 행사 종료 후 관계자 및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증권

개선하는 '무지개교실' 15년 넘게 이어오고 있으며, 도심과 농어촌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행복뚝딱 농어촌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깨비증권이 선물하는 행복뚝딱! 자립뚝딱!

지난해 KB증권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뚝딱 깨비증권 청년 지원 프로그램' 발대식을 진행했다. '자립뚝딱 깨비증권 청년 지원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해당 사회공헌 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KB증권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B증권은 정기적인 멘토링 활동과 심리상담을 지원함과 동시에 교육을 위한 물품구입 및 부대비용, 건강관리 등 자격취득 과정에서 필요한 자기개발 비

용도 따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원자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역량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전부터 KB증권은 '행복뚝딱 일일카페'를 진행하면서 평소 바리스타 자격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립준비청년들을 초청해 관련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이후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사회적 소외 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깨비증권 행복뚝딱 크리스마스 캠프'를 진행하기도 했다. 캠프에서는 KB증권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일선생님 및 조장 역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했다. 동시에 KB증권에서는 이들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및 면접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초청해 별도의 스피치 교육과정도 함께 제공했다.

◆ESG 평가 지배구조 분야 4년 연속 'A등급'

KB금융그룹은 금융회사로서는 유일하게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에서 4년 연속 전 부문에서 A+ 등급을 획득하며 'ESG 경영 선도 금융그룹'임을 입증했다. 이에 KB증권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KB증권은 2023년 한국ESG기준원(KC GS)의 ESG 평가 지배구조(G) 분야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ESG+I(Investment,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영, 사회책임 활동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ESG 생태계 참여 및 대외 기관과의 연계와 협업 등 ESG 분야별로 고르게 실행력을 높여 가며 ESG 선도 금융회사로 자리잡고자 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지배구조 분야에서 체계화된 ESG 실행 조직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소통,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 확립, 리더십과 임직원 커뮤니케이션의 조화, 내부통제와 윤리경영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교육·자기개발 지원 크리스마스 캠프 열어 취업준비 도와

ESG평가 4년간 A+... ESG경영 선도 사회적 가치 추구 '비콥운동' 나서기도

지난해 말에는 ESG 생태계 확장을 위한 '비콥 웨이브(B Corp Wave)'를 개최해 비콥 운동 지원 계획을 알리기도 했다. 비콥(B Corp)은 재정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기업에게 높은 투명성과 책무성, 사회환경적 성과를 검증한 후 부여하는 인증이자 브랜드로 2006년 미국의 비영리기관 비랩(B Lab)이 구축했다.

이밖에도 KB증권은 ESG 생태계 확산을 위해 소셜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KB증권 ESG 가치확산 투자조합' 펀드를 결성하고, 환경·사회에 기여하는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임팩트 투자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ESG 생태계에서 크고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소셜벤처 기업 임직원 대상 무료 자문 솔루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2년에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대 분야에 대한 10대 원칙을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제협약 '유엔글로벌 콤팩트(UNGC)'에 가입하기도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현대차 울산·전북, ACL 8강 맞대결... 700억 걸린 빅매치
▲K리그 개막전 직접 확인한 황선홍호, 새 얼굴 뽐나 /사진 뉴시스

▲'39세' 호날두, 은퇴하나... '1년 더 하면 선수 생활 끝낼 것'
▲맨시티, 맨유에 3-1 역전 거둬... 맨체스터 더비 완승



▲윤도현 대표·서건창 몰아치기... KIA 공격력 더 강해진다
▲최지만, MLB 시범경기 2경기 연속 침묵... 2타수 2삼진 /사진 뉴시스